

1999年度
國政監查

教育委員會會議錄

(附錄)

國會事務處

被監查機關 韓國教育放送院·韓國精神文化研究院

日 時 1999年10月12日(火)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답변서】

(답변서)

○韓國教育放送院長 朴興洙

(咸鍾漢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공사화 후 EBS 운영 방안

(답 변)

1. EBS는 “학교교육의 보완과 국민의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학교교육 지원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발전 선도, 다양한 계층의 평생교육 욕구 충족, 소수 시청자의 교육기회 확대, 민족·문화적 정체성 함양,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신방송기술 도입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2. EBS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 약 1,000억원의 운영재원이 소요되며, 이의 확보를 위해 국고 보조금으로 200억원, 수신료 및 방송발전기금 등으로 약 600억원, 자체 수입으로 약 200억원을 확보하고자 노력중입니다.

(질 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확대 방안

(답 변)

1. 교육방송이 소수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한국 교육 방송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청취 대상층을 보다 세분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수 계층 특히 장애인과 같은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 방송원에서 장애인을 직접 대상으로 제작 방송하는 프로그램은 EBS-FM의 [사랑의 한 가족](매주 일

요일 13:00~14:00)입니다.

2. 자립 의지 제고는 물론 다양한 자립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TV를 통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개발·편성 문제는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켜 줄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로 나와야 하는지 등에 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편성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직업 재활 능력 향상의 경우 장애 유형별 등급별에 따른 세분화 및 교육의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 교육을 중심 축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허락 범위 내에서 내년 부터 1일 2시간 정도 한글 자막 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일반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와 교양·정보 프로그램들에 우선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질 의)

교사대상 프로그램 확대 방안

(답 변)

1. 교육방송에 교사 연수 교육 프로그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교사 연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그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미처 충분하게 편성하지 못했던 것은 교육방송의 제작비, 인력 등 종합적인 여건이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연수 프로그램은 상당기간 준비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 학생 교육용 프로그램은 이미 교육 커리큘럼이 정부에 의해 상당한 연구가 수행되어 그 내용에 따라 제작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사를 교육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은 현재 부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부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 현재 교사 대상 프로그램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었습니다. 교사 직무교육 프로그램과 교사가 직접 교수학습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형 프로그램으로 대별됩니다. 통상 협의의 교사대상 프로그램으로 전자를 언급합니다. 교수학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선진적이고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는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방법론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현재로서 태부족한 상태여서 앞으로 연구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자료를 활용하여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광의의 교사 대상 프로그램은 현재 교육방송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육방송에서 방송되는 <미의 세계>, <음악 다큐멘터리> 등의 외국의 우수한 교육다큐멘터리와 <고교영상학습>, <중학영상학습>, <테마탐방>, <클래식이야기>, <출동 초록수비대>, <꾸러기 안전일기> 등과 같은 국내 프로그램을 수업현장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 앞으로 교사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교과 영역, 교수학습 방법론, 유아, 초등, 중등 등 학교급별 그리고 기타 교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별로 체계화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작여건 다른 영역의 프로그램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편성비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질 의)

EBS 우수 인력 확보 방안

(답 변)

1. 교육방송 특성에 맞는 전형절차 마련

○전형과정

- 1차 : 서류전형(TEPS, TOEIC, TOFLE 일정 점수대 이상자 우대)
- 2차 : 필기시험
- 3차 : 면접(영어면접 포함)

○특성있는 전형과정 활용

-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할 PD직종 채용시에는 면접전형전 '스토리보드'제작과정을 거침으로써 실제 현업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개인별 창의력 및 제작관련 전문지식을 사전 테스트 ⇒ 면접전형시 참고자료로 활용

○면접전형 강화

- 면접전형에 특히 중점을 두고 전형 실시 ⇒ 공익 방송기관의 직원으로서 적응력이 뛰어나고 창의력을 갖춘 인재 발굴

- 영어면접 전형을 통해 제2외국어 구사능력을 지닌 직원 우대 선발 ⇒ 선진 방송문화 및 기술 습득이 용이

2. 적절한 배치 및 직무연수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절한 배치

- 신규 채용 후 개별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별 희망 담당업무 및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기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능력과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

○수습기간 중 철저한 직무수행능력 평가

-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인사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6개월간의 수습과정을 거쳐야 하는 바, 수습기간 동안 면밀한 관찰을 통해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엄정하게 평가 ⇒ 잠재성 있는 인력을 선별하여 집중 양성

○개인별 직무연수 강화

- 채용후 직무수행능력 제고 및 적응력 향상을 위해 개인별, 직무별 교육을 강화
- 전문가 초빙 현장실무연수 위주의 실무교육과 외부 방송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위탁연수를 중점적으로 실시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선결 과제

○위상전환을 통해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보

- 현 교육방송이 교육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관계로 정원관리 등이 재경원 및 기획예산처 등 상급 국가기관의 일률적인 정책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우수인력의 적시 확보를 위해서는 공사화 등으로의 위상전환을 통해 인력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근무환경 및 보수수준 향상

- 독립청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무실이 3곳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음
- KBS대비 65% 정도의 급여수준으로는 우수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제작관련 예산 확충을 통한 프로그램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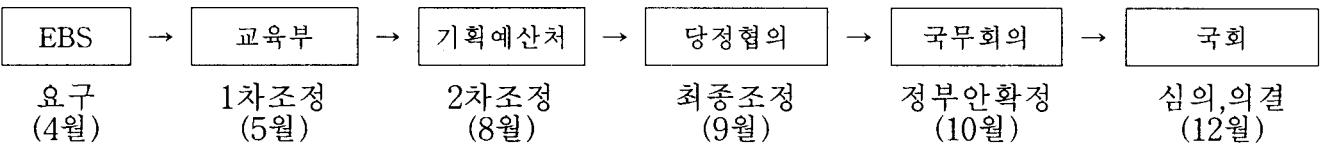
- 프로그램의 질로써 대변되는 방송사인 관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자기실현의 동기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어야 우수인력 유치가 가능함바, 이를 위해서는 타 방송사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제작비 예산의 확충이 절실

(薛 勳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교육방송의 방송장비 디지털 전환대책은?

- (답 변)
1. 우리나라의 디지털 방송은 '99년10월부터 디지털 시험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10월부터는 시험방송을 시작하고 2001년부터는 수도권에서 본 방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교육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정 소요비용은 약 612억원으로 제작 및 송출 시설 348억원, 방송자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환에 26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에 걸쳐 방송장비를 디지털로 전환할 계획임.
 3. 소요예산 총당은 방송 4사 공히 정부에 재정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교육방송도 2000년도 소요액 165억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질 의)
교육방송의 충분한 재원확보를 위한 출연금



3.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출연기관의 자체수입의 확대를 출연금예산을 보다 절감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고, 교육방송 입장에서는 자체수입 증대의 한계와 제대로 된 교육방송의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점이 예산과정상

지원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의 어느 부서와 관계되는 문제인가?

- (답 변)
1. 정부출연기관의 예산은 당해 출연기관의 총소요예산 중 먼저 자체수입 예산을 확정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인건비, 사업비, 경상비 등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금예산을 정부가 요구하여 국회에서 확정합니다.
교육방송의 2000년도 정부출연금 예산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예산의 26.8%, 자체수입 예산은 73.2%에 해당합니다.
수치상으로는 조만간 출연기관으로서 정부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자립을 이룰수 있을 것 같으나, 열악한 프로그램 제작비와 교육방송관련 사업비의 현실화에는 세출규모가 턱없이 부족하여 그 재원을 충당하려면 공적재원(수신료, 공익자금 또는 정부출연금 등)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2. 교육방송의 정부출연금 예산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갈등 요인입니다.
4. 교육방송의 출연금 예산은 다음과 같은 정부소관부처에 의해 요구예산(안)이 심의, 조정됩니다.
가. 교육부 : 기획관리실 교육정보화담당관
나. 기획예산처 :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교육정보예산과

<표1> 2000년도 세입예산 요구 및 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EBS요구안	교육부조정	기획예산처조정
정 부 출 연 금	53,803	22,547	14,303 (26.8%)
자 체 수 입	29,211	33,997	39,032 (73.2%)
총 예 산	83,014	56,544	53,335 (100%)

(질 의)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 개발 계획은?

- (답 변)
1. 2002년부터 시행되는 입시제도의 다양화에서

요구하는 창의력, 상상력, 체험중심, 표현력 신장 등을 강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기본적인 개발 방향은

○7차 교육과정 정신에 부합하는 통합형 프로그램 개발

○단순 지식 전달 위주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탈피

○학년의 개념을 최소화한 프로그램 개발

○과학기술 지식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학습 자료형 과학기술 프로그램 개발

2. 이에 따른 학교급별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 초등학교

-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1998년부터 기획하여 1999년 현재까지 2000년도에 방송될 초등 1, 2학년용 대상으로 한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3개 교과목의 방송 프로그램과 교재를 사전 연구·제작하고 있다. 또한 점진적으로 2000년에는 3, 4학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01년에는 5, 6학년 프로그램을 개발한 계획이다.

나. 중학교, 고등학교

- 입시 제도의 다양화와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방송교재나 프로그램 개발

(1) 문제위주의 내용에서 탈피하여 수행평가 및 주관식 문항 대폭 확대

(2) 교과 교육 보안을 위한 자료형 프로그램 개발(영상학습자료)

(3) 선택교과 교육 프로그램 확대(제2외국어 프로그램 개발)

(4)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10대의 표현 우리가 말한다)

(5) 인성 교육 프로그램 확대

(李壽仁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EBS의 역할은?

(답 변)

1. EBS는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전국민의 신지식인화를 위한 평생학습사회 조성, 교육현장과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교육개혁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2. 구체적으로는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학부모, 교사들에게 알리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주체들의 교육개혁 의식을 제고하고, 교육개혁의 국내외 성공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교육개혁의 현장 적용을 확산시키고, 교육개혁의 저해요인을

분석·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감시함으로써 교육개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질 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대응방안

(답 변)

1. 최근 교육계 환경은 교육개혁, 2002년 새 대입제도의 도입, 7차 교육과정의 시행 등을 축으로 격변하고 있습니다. 교육방송도 마땅히 새로운 환경 변화에 걸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방송은 지난해부터 실험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편성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교육방송은 6차 교육과정과는 질적인 케를 달리하는 2000년 초등학교부터 시행되는 7차 교육과정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그동안 1년간 사전기획작업을 수행해 왔고 올해는 2000년3월 방송을 예정으로 사전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교육방송의 독자적인 방송용 커리큘럼을 완성하고 종합적 사고력 신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통합 교과형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전의 지식전달 위주의 강의형 프로그램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강의형태를 배제하였고 학교 현장 교사가 구하기 힘든 영상자료를 선진기법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대상으로는 우선 시범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영상자료형 프로그램인 <중학영상학습-세계사, 과학>, 고교생 대상으로는 <고교영상학습-한국지리, 공통과학>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 교사 대체형 프로그램에서 현장학습 보완, 보충형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교생 대상 <즐거운 책읽기>, <테마탐방>, <청소년 미술감상>도 종전의 강의형 학교교육 프로그램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방송하고 있는 어린이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출동 초록수비대>, 어린이 안전교육프로그램 <꾸러기 안전일기> 등도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범교과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의 적용시기에 따라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에는 현재의 강의형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2~3배의 제작인력과 제작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당장 전면적인 실시는 현재의 교육방송 여건을 감안 할 때 불가능합니다. 교육방송의 위상이 변화하고

제작여건이 건설해지면 명실상부한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2002년까지 6차 교육과정을 적용 받는 중고생에게는 현재 형태의 학교 교육프로그램의 방송이 불가피합니다. 더욱이 새 대입제도가 2002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학원, 과외 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등 소외 지역 학생을 위해서 현재의 강의형 (일명 과외형)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이들 중심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그 수요에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고 현재의 예산과 인력 여건으로는 현재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질 의)
교육방송 공사화에 따른 EBS의 운영방안

(답 변)

1. EBS는 “학교교육의 보완과 국민의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학교교육 지원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발전 선도, 다양한 계층의 평생교육욕구 충족, 소수 시청자의 교육기회 확대, 민족·문화적 정체성 함양,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신 방송기술 도입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2. EBS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 약 1,000억원의 운영재원이 소요되며, 이의 확보를 위해 국고 보조금으로 200억원, 수신료 및 방송발전기금 등으로 약 600억원, 자체 수입으로 약 200억원을 확보하고자 노력중입니다.

(질 의)
성인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방안

(답 변)

○교육방송은 97년 위성방송을 시작하면서 지상파 TV방송은 사회교육 채널, 위성1TV는 고등학생 대상 학교교육 방송, 위성 2TV는 초·중학생 대상 학교방송으로 채널 차별화를 한다는 목표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상파 채널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편성비중이 1998년 62.1%(3,450분/5,550분)에서 1999년 79.3%(5,060분/6,380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성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비중도 98년 43.1%(2,390분/5,550분)에서 99년 59.8%(3,815분/6,380분)로 확대하였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평생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그 방향은 실용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방송에서는 2000년3월 정기 개편시 교사대상 재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진로·직업 교육의 확대 및 일반인들의 취미와 능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고자 준비중입니다.

(질 의)
시청률 조사제도 개선 방안

(답 변)

○한국 교육 방송원 프로그램이 시청률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공영 방송으로서 교육적 메시지가 분명한 프로그램들을 편성하고 있는 교육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한 질적 평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로그램 질 개선을 위한 사전 조치 단계로는 프로그램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회의를 정례화 해 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고 일단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를 통해 피드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 방송원 시청자 위원들의 월례 회의를 통해 분야별 영역별 프로그램 모니터를 실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30명의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매일 모니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기준은 주제의 적정성, 구성의 적절성, 학습의 효과성 등 주로 프로그램 질과 관련된 내용을 모니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은 더욱 모니터를 강화하고 그 결과의 반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교육방송 운영자금의 수익증권 투자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답 변)

1. 운영자금의 수익증권 투자에 따른 문제점 가. 운영현황

교육방송은 운영자금(일반운영자금 및 퇴직적립금 재원 등)을 수익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96년부터 제2금융권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예치 운용하여 은행 이율보다 2~3%의 높은 수익을 올려왔으나 '99.8.12 정부 긴급조치로 발표된 “투자신탁의 환매제한 조치”에 의거 수익증권 예치원금 14,529,762천원 중 대우채권에 편입된 금액은 1,963,068천원으로 약 13.51% 정도가 됩니다.

나. 문제점

대우채권에 편입된 수익증권은 환매기간 (60~180일)에 따라 5~50% 유보액을 정하여 환매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현재 환매 인출시에는 50%의 유보액 공제로 인한 손실발생이 예상되므로 수익증권을 인출하지 못해 기관운영자금의 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일부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대책

가. 대우 편입분 수익증권 환매제한 조치로 인한 일부 운영자금 부족분은 교육방송자체사업 중 교재대행 보급권료 수입 등에 대한 받을 어음 결제기간을 관련출판사와 협의를 통하여 약 2개월 정도(3개월→1개월) 단축하였으며, 집행 예산 중 물품대금 및 외주제작비 지급을 받을 어음 결제일자에 맞추어 지급하는 등 자금집행을 조정 운용하여 단기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는 대우채권에 미편입된 자금으로 대체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집행하고 있어 기관운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 대우채권에 편입된 수익증권은 환매 예정기간을 180일에 해당되는 2000.2.8.에 인출하면 95%의 적용을 받아 손실을 최소화(5%)하고, 대우편입 채권 손실예상액 5% 해당분 98,153천원과 대우편입분 채권 수입이자 미계상분 67,766천원 합계 165,919천원 정도의 손실을 비대우공사채 수익증권 원금 12,566,694천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에서 제외하게 되므로 당초 교육방송에서 예상했던 수익률이 다소 낮아지는 것이지 원금을 손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앞으로는 자금운용의 수익성보다는 안전성, 유동성을 고려하여 법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은행의 정기예금 및 MMDA예금 또는 종합금융의 CMA, 투자신탁의 클린펀드인 신중 MMF 종목 등으로 기관운영자금을 탄력적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金瑋鎬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위성교육방송의 문제점 및 대책은?

(답 변)

1. 위성교육방송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첫째, 과외 중심 프로그램, 둘째, 일방향적 주입교육으로 인한 교육효과 저하, 셋째 학교수업진도와의 불일치와 중·상위권에 적합한 내용 수준, 넷째,

최근 교육부의 자율학습 폐지로 인한 방송수업 금지조치로 학교에서의 위성교육방송 프로그램 활용저하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비교과 프로그램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EBS는 중·고등학교 수업현장에서 학습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영상학습프로그램과 음악, 미술, 문학 및 독서교육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방과후 지원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고 있습니다.

3. 일방향적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에듀넷과 EBS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질의응답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쌍방향 교육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 자율학습 폐지로 인한 학교현장에서의 위성교육 방송 프로그램 활용률 저하 문제는 위성교육방송의 실시 목적을 달성하고, 위성교육방송 수신을 위해 설치된 위성방송 수신장비의 효율적 활용과 학교현장의 풍부한 학습 지원을 위해 교육행정당국의 방송자율학습 권장 조치 등을 통해 위성 교육방송프로그램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5. 위성교육방송은 공교육의 보완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자율학습폐지와는 별도로 학교에서 위성 방송을 통한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행정지도와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활용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질 의)
교육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충 방안은?

(답 변)

1. EBS는 사업다각화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자체 수입증대 노력의 결과로 '91년 대비 '97년 세입이 455% 증가, 자체수입비율은 26.7%에서 '97년 예산의 경우 79.4%로 괄목할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2. 그러나 경제침체로 교재인세 및 상업광고수입이 주종인 자체수입의 증대를 통한 재정 자립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더구나 '98년의 경우 정부출연금이 전년대비 18.1%(42억9,000만원)가 삭감되었고 '99년에도 '98년(194억원) 대비 31.1%인 60억 4,000만원이 삭감된 133억원 수준입니다.

133억원으로는 지상파 TV1, 위성TV2, 라디오 1개 채널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3. 결론적으로 국민에 의해 교육방송에 부여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부 공약사항인 공사(公社)체제로 위상을 바로 세우고

자하며, 공사체제의 운영에는 최소한 약1천억원의 운영재원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 200억원은 국고보조금, 방송발전기금 및 수신료 약 600억원 자체수입으로 약2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EBS 경영진은 최대한 노력 중이며,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朴承國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위성교육방송의 강의수준과 진도의 차이가 있어 학교현장에서의 이용이 어려워 이용률 저하를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1. 위성교육방송 교과프로그램 초·중·고 각급별 단위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초등학교는 제7차 교육과정과 맞추어 사전제작을 실시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수업시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료형 프로그램을 2000년부터 방송할 예정임.
2. 또한 중·고 프로그램도 중학영상학습, 고교영상학습 프로그램을 20분 단위로 수업시간에 교차 편성하여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 제작 방송하고 있음.
3. 프로그램 내용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중하위권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 출연교사를 분기별로 연수하고 투입하고 있으며, 학교현장 반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요구도를 조사하여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여 활용의 폭을 넓히고 보다 많은 학생이 시청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임.

(질 의)
청사 분산으로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는데 이는 예산낭비를 초래하므로 한군데 모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답 변)

1. 교육방송은 '90.12.27 EBS 개국 이후 한국교육개발원 청사 일부와 외부 건물 3곳(해동빌딩, 교총빌딩, 송파사회교육원빌딩)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2. 교육방송은 청사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여 왔으나, IMF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상황으로 청사신축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청사신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3. 향후에 청사 건축비 확보가 될 경우 즉시 청사신축에 착수할 계획임.

(질 의)
공사화 후 교육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답 변)

1. 최근 공동여당이 마련한 교육방송공사법의 이사회 구성상 교육부장관과 교육관련단체에서 각 1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2. 공사법 설립목적에도 교육방송은 “학교교육의 보완과 국민의 평생교육을 실현”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교육부와의 관계 정립방향이 명시되어 있듯이
3. 향후 교육정책과 교육내용상 교육방송공사는 밀접하게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며, 교육방송에서도 교육부에서 기 발표한 교육개혁 시안을 적극 수용하여 교육개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함.
4. 따라서 교육방송의 위상만 바뀔 뿐 모든 정책과 교육방송의 경영방침은 더욱더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질 의)
'99년도 보충수업 자율학습 운영개선」에서 보충학습과 방송학습이 제외됨으로써 그 결과 EBS의 제작비 120억원과 위성시설 설치비 100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 변)

1. 교육부에 교육방송 시청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각 시·도 교육청에도 교육방송 활용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대구 영신고등학교 등 교육방송 우수 활용 시범학교와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교육방송 활용률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임.
2. 현재 일선학교에서 교육방송 활용률은 '99년4월 EBS 자체조사결과 초등학교 85.9%, 중학교 46.9%, 고등학교 48.4%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프로그램(인성, 창의력, 특기적성, 종합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 등)의 각급 학교의 시청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면 제작비나 위성수신시설 설치비 낭비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李榮一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국내외 방송국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판매 방안?

(답 변)

[국내]

1. EBS방송프로그램 판매활동 및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지방방송국 및 CATV (유선방송포함) 방송 등에서 프로그램 구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직 이들의 재정 구조가 열악하여 아직 주목할만 하지는 않으나 E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다큐, 교육, 환경, 문화, 예술 등의 프로그램은 이들에게 판매될 수 있는 좋은 영상 자료로서 프로그램 가이드북 발간 배포 및 방문 활동 등을 통해 홍보 중에 있습니다.

- 판매처 : 지방방송국 및 CATV(울산방송, Q채널(중앙방송), 아리랑 TV 등)

- 판매촉진활동

- 프로그램 가이드북 발간·배포
- 방문활동 : '99년 들어 각 지방방송국을 1차 방문 판촉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2. 프로그램판매 촉진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가이드 북 내용(프로그램 내용 설명 등)을 보다 충실하게 하여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이드북의 발간을 반기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문 판매 활동을 정례화하는 등 판촉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 내용을 적극 소개할 계획이며, Clip화면 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에 대한 정보 검색의 편의성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방송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판촉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외]

1. 교육방송은 1997년부터 해외방송사를 대상으로 자연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수출사업을 진행하여 재정수입의 증대 및 대외이미지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4월부터는 본 사업을 수입대체사업으로 지정하여 보다 책임있고 과학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1999년10월14일 현재 총 57,514,052원의 수입이 확보되어 금년말까지 약 129,514,092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 2000년부터 교육방송은 자연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물론 각국의 교포방송에 대한 프로그램 판매, 그리고 주로 동남아시아지역 방송 및 비디오 매체를 통한 어학프로그램 판매에 주력하면서, 선진적인 판매목표시스템을 도입하고, 국제프로

그램시장에 판매 부스를 설치하는 등 보다 본격적인 프로그램 수출사업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 의)

장애인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장애인이 특수 학교나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방안은?

(답 변)

1. 교육방송이 소수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한국 교육 방송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청취 대상층을 보다 세분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수 계층 특히 장애인과 같은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 방송원에서 장애인을 직접 대상으로 제작 방송하는 프로그램은 EBS-FM의 [사랑의 한 가족](매주 일요일 13:00~14:00)입니다.

2. 자립 의지 제고는 물론 다양한 자립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TV를 통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개발·편성 문제는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켜 줄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로 나와야 하는지 등에 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편성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직업 재활 능력 향상의 경우 장애 유형별 등급별에 따른 세분화 및 교육의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 교육을 중심 축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허락 범위 내에서 내년부터 1일 2시간 정도 한글 자막 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일반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와 교양·정보 프로그램들에 우선적으로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金日柱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협찬금을 증대키 위해 PD에게 할당하는 등 무리한 협찬금을 유치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반하는 조치인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답 변)

1. 기관 재원 여건상 자체수입 증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협찬금 유치목표를 PD에게 할당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며, 경영 방침상 경쟁력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중 수입증대를 위해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여 부

서장급 이상에게 일정액 이상의 협찬금을 유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한 것이 왜곡된 것임.

2. 협찬금 중 일부는 이사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성과급으로 지급할 계획임.

(질 의)

출판사들의 EBS방송교재 인세율 적용의 불공정 주장에 대한 입장과 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상황

(답 변)

1. 먼저 출판사들의 EBS방송교재 인세율('99년부터 대행 발행·보급권료 적용요율로 명칭변경 사용) 적용의 불공정 주장에 대한 입장과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교육방송의 방송교재 대행 발행·보급권료 적용요율은 교재별 판매 부수를 기준하여 최저 6%에서 최고 20%까지 차등적용(별첨 참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든 교육방송 방송교재의 대행 발행·보급권료 적용요율이 20%다”라는 일부의 주장은 실제와 다릅니다.

○EBS방송교재의 대행 발행·보급권료 적용요율은 해당 교재의 기본 판매 부수(Final수능특강 언어영역 30만부를 비롯하여 주요과목의 경우 20만부 이상 판매됨)와, 다른 학습교재와의 상대적 비교 우위성【타교재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자체 판단, 특수수험 교재(손해사정인 등)의 경우 20%~40%】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또다른 기준으로는 다른 학습교재는 한번 발행으로 판매기간에 구매받음이 없이 장기간 판매가 가능하나, EBS방송교재는 일정한 기간(방송기간)동안 발행될 뿐 아니라 다른 일반 학습교재와는 달리 다수를 대상으로 관련 교과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단순히 교재 판매의 차원을 넘어 구매자의 학습효과를 배가시키는 특수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상품(교재)으로서의 차별적 가치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EBS방송교재의 대행 발행·보급권료 적용요율은 저작권자로서 받는 대가 뿐만 아니라 EBS라는 인지도 높은 상표 사용에 대한 비용까지도 포함된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수성을 간과한 채 일률적으로 다른 학습교재의 인세율(5%~12%정도)과 동일시하여 “EBS방송교재의 적용요율이 다소 높다”라는 일부의 견해가 있으나 이는 불합리하다 하겠습니다. 더구나 대행 발행·보급 권

료 결정에 있어 실제 적용요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이 보다는 입찰시 출판사 스스로 제시한 판매비율에 의한 부수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용요율의 높고 낮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편 계약부수는 실제 판매부수가 아니라 입찰시 출판사들이 EBS방송교재의 발행·보급권을 부여받기 위해 스스로 결정·제시하여 낙찰된 부수입니다.

즉, 낙찰부수는 저희 교육방송교재 발행·보급에 대한 대가로 출판사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인세('99년도부터 대행 발행·보급권료 명칭변경 사용)의 그 산정기준으로서 계약판매 부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방송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부수를 제시한 출판사에 교재 대행 발행 보급권을 주고 또한 실제 판매 부수가 더 많고 적든 상관없이 출판사가 제시한 부수 즉 계약판매 부수를 기준으로 대행 발행·보급권료를 받는 것은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대행 발행·보급권료 적용요율은 적정 수준이며, 앞으로 기관위상, 재원 구조 및 학습교재 시장에서의 EBS교재 점유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2. 다음은 EBS방송교재 출판 계약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상황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가. 지난해 4월 및 8월경 일부 출판사는 EBS방송교재 대행 발행·보급 계약과 관련하여 교육방송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 및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각각 청구하였습니다.

(1) 불공정약관에 관한 심사 청구건

- 심사청구인 : (주)피어리스교육문화 등 12개 업체
- 심사청구내용 : 인세 및 프로그램지원비 책정이 과다하고 지체상금 청구가 과다하므로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되어 약관법 제17조 위반

(2)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 건

- 신고인 : (주)청색시대 등 6개 업체
- 신고내용 : 계약판매부수 책정은 판매목표 강제이며, 프로그램제작지원비의 징수는 이익제공강요이며, 22%의 인세 및 2.5/1000에 달하는 지체상금의 부과와 위성방송을

개시하여 기존 지상파 교재출판사에 대해 손실을 입힌 것은 불이익제공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

나. 이에 대해 교육방송은 충분한 자료 제출과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소명하였음

(1) 출판사 선정에 있어 특별 교재 공급으로 취급한 외국어 교재(TV토익)의 대행출판사를 제외한 모든 대행 출판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위는 입찰전 계약 조건으로 사전에 제시하였고 출판사 역시 이를 수용하여 입찰, 계약한 사항이므로 절차 및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문제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아울러 EBS는 인세 및 프로그램지원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계약 내용을 강요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계약 내용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획일적인 잣대로 과다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다만, 지체상금의 과다 적용 사실을 인정하여 이미 금번 심사청구 이전 개선 시행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다. 위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98.12.7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에 관한 심사청구건에 대해 주요 쟁점 사항인 인세 및 프로그램 제작지원비의 납부 관련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지체상금, 기한이익상실, 계약의 해제, 정책변경에 따른 조치, 합의관할, 특례사항 등 6개 약관조항에 대해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이에 교육방송은 약관변경을 통해 행정처분을 이행하였음.

(2)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99.8.18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건에 대해 우선판매목표 강제여부 및 위성방송 개시 관련 기존 출판대행사의 손실 부담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인세율 과다여부 및 프로그램제작지원비 부과행위에 대하여는 심의절차 종료한 바 있습니다. 즉 교육방송이 위법한 사실이 없음을 통보한 것임. 다만 지체상금 수납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이에 교육방송은 행정처분을 이행하였음.

대행 발행 보급권 적용요율

(부가가치세 제외)

대 상	기 준	발행주기	비고
초등 방송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만부 미만 : 7% • 3만부 이상 : 9% 	방학기간, 학기간 (기타교재 포함)	
중학 방송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만부 미만 : 7% • 10만부 미만 : 9% • 15만부 미만 : 11% • 15만부 이상 : 13% 	학기간	
고교 방송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부 미만 : 15% • 15만부 미만 : 18% • 15만부 이상 : 20% 	학기간	
어학 방송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천부 미만 : 6% • 2만부 미만 : 7% • 2만부 이상 : 9% 	월간, 계간	

(질 의)

방송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사유와 가격 책정의 근거 및 투명성 확보 방안

(답 변)

1. 첫째, EBS방송교재 가격 책정의 근거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EBS방송교재는 대형 출판사를 통해 발행되며, 교재의 정가는 출판사가 신청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방송이 가격 사정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 가격 사정의 기준은 정부 조달청 인쇄 기준 요금을 적용한 원가계산에 의해 산출한 가격과 시중 유사 학습교재의 가격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방법으로 최종책정됩니다.
 -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요 EBS방송교재인 고교교재의 경우 '98년에는 시중 유사교재의 면당단가 대비 88%~92%수준에서 정가를 책정하였으며, '99년은 90%~94%수준에서 정가를 책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중 유사교재의 면당단가 대비 다소 낮은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으로 정가를 책정해 온 것이 사실이나 근래에 와서 물가 인상, 해당 프로그램제작비의 증가, 시장에서의 영업경쟁력 확보 및 방송교재시장 육성, 방송교재 자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EBS 방송교재의 정가를 일부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원가계산에 의한 산출가격에 비해서는 70%~90%('99년 고교교재)수준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2. 둘째, 일부 교재 가격의 인상 사유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3년 위성방송교재의 가격이 인상된 것은 사실이나, '98년 1학기 대비 '99년 1학기 고3년 위성방송교재의 가격이 평균 5,540원에서 7,080원으로 27%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인상된 이유는 우선 TV시청에 따른 교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3년 위성방송교재의 평균 면수가 213면에서 264면으로 24% 정도 증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구하고 가격인상의 분석 기준인 교재의 면당 단가는 평균 26.01원에서 26.82원으로 3% 정도 인상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물가 인상 등의 요인도 포함되었다 하겠습니다.
 - 또한 '98년도 1학기의 경우 IMF국가경제위기하에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출판사들이 중심이 된 학습자료협회의 '학습교재 정가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20% 정도 함께 인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9년 1학기 교재가격의 경우 어느 정도 가격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교재 면수를 감안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 많이 인상된 것으로 잘못 인식된 것입니다.
3. 끝으로 방송교재 가격 책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 EBS방송교재의 원가계산 기본방식은 1997년 감사원 감사 수감결과에 따라 개선된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 교재 가격 사정에 필요한 지대 및 인쇄비 등은 정부 조달청 인쇄 기준 요금을 적용하거나 기준 적용이 곤란한 사항은 실거래가격 등을 반영하는 등 가격 책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원가계산방식에 의해 산출된 가격을 그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향조정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시중의 유사 학습교재의 정가를 조사·비교하여 이를 책정하는 등 정가 책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질 의)
 카메듀서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활성화 계획

(답 변)

1. 문제점

- 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은 기획·연출·촬영·편집·녹화 등 제작과정별로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인력이 종합적으로 참여하여 제작물을 산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나. 카메듀서제는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카메라맨이 상기 일련의 제작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 카메라맨 1인 제작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인력 및 제작비 절감을 기할 수 있어 교육방송에서는 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동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 그러나, 카메라맨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기존 프로그램의 촬영과 카메듀서 운영 프로그램 제작을 병행함으로써, 해당직원들의 높은 업무성취 욕구에도 불구하고 업무부담이 대폭 증가되어 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제약이 따르고 있고,
- 라. 각 제작과정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지식을 고루 갖춘 인력을 발굴, 양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카메듀서의 확대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 마. 또한, 카메듀서제 운영 대상 프로그램은 영상미를 중시하고 인위적인 연출보다 자연스러움이 강조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프로그램이

나, 현장성·속보성이 증시되는 뉴스 프로그램으로서, 대상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2. 활성화 계획

가. 프로그램 성격상 카메듀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나. 카메라맨을 대상으로 기획·연출 및 편집 방법 등 제작기법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여 제작 과정에 고루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질 의)

지상파 TV를 사회교육 전문 채널로 특성화하는 방안은?

(답 변)

1. 교육방송에서도 교육과 재미를 동시에 갖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동안 초등교과 프로그램 사전제작과 자연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 일부의 프로그램에서 타 프로그램에 비해 많은 기획기간 및 제작비, 제작기간을 투여하여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제작인력, 시설,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충분치 못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부족한 여건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시청자의 사랑을 받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지상파 채널의 사회교육 전문채널로의 특성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방송은 97년 위성방송을 시작하면서 지상파 TV방송은 사회교육 채널, 위성 1TV는 고등학생 대상 학교교육 방송, 위성 2TV는 초·중학생 대상 학교방송으로 채널 차별화를 한다는 목표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상파 채널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편성 비중이 1998년 62.1%(3,450분/5,550분)에서 1999년 79.3%(5,060분/6,380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성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비중도 98년 43.1%(2,390분/5,550분)에서 99년에는 59.8%(3,815분/6,380분)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방송에서는 2000년3월 정기개편시 교사대상 재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진로·직업 교육의 확대 및 일반인들의 취미와 능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고자 준비중입니다.

(盧武鉉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EBS 공사화 후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질 확보 방안

(답 변)

1. EBS 공사화 후 현재의 교육부로부터 소관부처가 변경된다 할지라도 EBS 공사법에 명시된 학교교육의 보완과 국민의 평생교육 실현, 민주적 교육 발전에의 이바지라는 EBS 본연의 역할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공적자금에 의한 운영 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질은 더욱 제고될 것입니다.

2.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상학습 자료와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사연수 프로그램 등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프로그램 평균제작비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제작비와 제작 인력의 확충이 필연적입니다.

3. 또한 교육프로그램 제작시 학교현장교사, 교육 및 방송전문가, 교육전문 행정가 등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학부모 등 교육 유관단체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 질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金光洙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교사대상 프로그램 편성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은?

(답 변)

1. 교사대상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방송에 교사 연수 교육 프로그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교사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편성할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미처 충분하게 편성하지 못했던 것은 교육방송의 제작비, 인력 등 종합적인 여건이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연수 프로그램은 상당기간 준비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 학생 교육용 프로그램은 이미 교육 커리큘럼이 정부에 의해 상당한 연구가 수행되어 그 내용에 따라 제작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사를 교육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은 현재 부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작비, 제작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종합 계획부터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현재 교사 대상 프로그램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교사 직무교육 프로그램과 교사가 직

접 교수학습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형 프로그램으로 대별됩니다. 통상 협의의 교사대상 프로그램으로 전자를 언급합니다. 교수 학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선진적이고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는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방법론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현재로서 태부족한 상태여서 앞으로 연구개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자료를 활용하여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광의의 교사 대상 프로그램은 현재 교육방송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육방송에서 방송되는 <미의 세계>, <음악 다큐멘터리> 등의 외국의 우수한 교육 다큐멘터리와 <고교영상학습>, <중학영상학습>, <테마탐방>, <클래식 이야기>, <출동 초록수비대>, <꾸러기 안전일기> 등과 같은 국내 프로그램을 수업현장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3. 앞으로 교사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교과 영역, 교수학습 방법론, 유아, 초등, 중등 등 학교급별 그리고 기타 교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별로 체계화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작여건, 다른 영역의 프로그램과의 균형을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편성비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질 의)
제작협찬 확대에 대한 EBS의 공영성 확보 문제

(답 변)

- 1. 교육방송은 매년 사업규모는 확대되는 반면 정부출연금은 축소되어 자체수입 비중은 '99년 현재 79.4%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교육방송의 비상업적인 매체 특성상 시청자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수입재원 개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청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기업체의 제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프로그램 제작협찬이며 EBS의 협찬 프로그램은 교육방송의 기본 방송이념에 적합한 것들만 선택하여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의 공영성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협찬프로그램은 편성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2. 또한 기관 재원 여건상 자체수입 증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협찬금 유치 목표를 PD에게 할당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며, 경영방침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중 수입증대를 위해 부서장급 이상에게 일정액 이상의 협찬을 유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한 것이 왜곡된 것입니다.

(질 의)
환경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의 생태계 파괴 방지 대책

(답 변)

EBS의 경우 자연다큐멘터리나 환경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아래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 1. 자연생태 및 환경을 인위적으로 변경, 조작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환경 및 자연관련 프로그램제작에서 자연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풀 한 포기라도 밟게 되는 자연훼손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방송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경우가 아닌, 의도적인 촬영을 위해 생태나 환경에 인위적인 변경이나 조작을 일체 금하고 있으며 촬영 전과 동일한 생태계 및 환경을 유지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 2. 간접적인 환경파손 금지

제작진에 의한 직접적인 환경훼손을 금지하는 것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촬영시 생물들이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으며, 방송 시 장소고지에 의한 타인에 의한 환경파손 등 간접적인 환경파손에 대한 지침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 때 장소고지 여부에 대한 심사.

제작 前 전문가로부터 자문과 생태학습을 통한 연구

- 3. 프로그램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프로그램의 높은 시청률 등, 결과를 우선하는 풍토는 곧 바로 자연파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방송은 결과보다 제작의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장면보다는 생명을 중시하여 가끔 촬영 때에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해 촬영을 포기한 경우도 많습니다.

- 4. 자연친화적인 제작진을 선별하여 제작에 임한다.

타 방송과 확연히 다른 점은 교육방송 환경, 자연프로듀서의 자질은 이미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환경주의자 중에서 선별하여 프로그램을 맡기고 있다. 그리고 여태까지 촬영 시 생태파괴

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교육방송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후대에 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주자는 취지아래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에 임할 것입니다.

【서면질의·답변서】

(답변서)

○韓國精神文化研究院長 韓相震

(薛 勳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정문연의 10년 장기발전계획수립 의향은?

(답 변)

○본인이 원장으로 취임하여 수립한 한국정신문화 연구원의 장기종합발전계획(안)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종합발전계획(안)

I. 기본 방향

1. 목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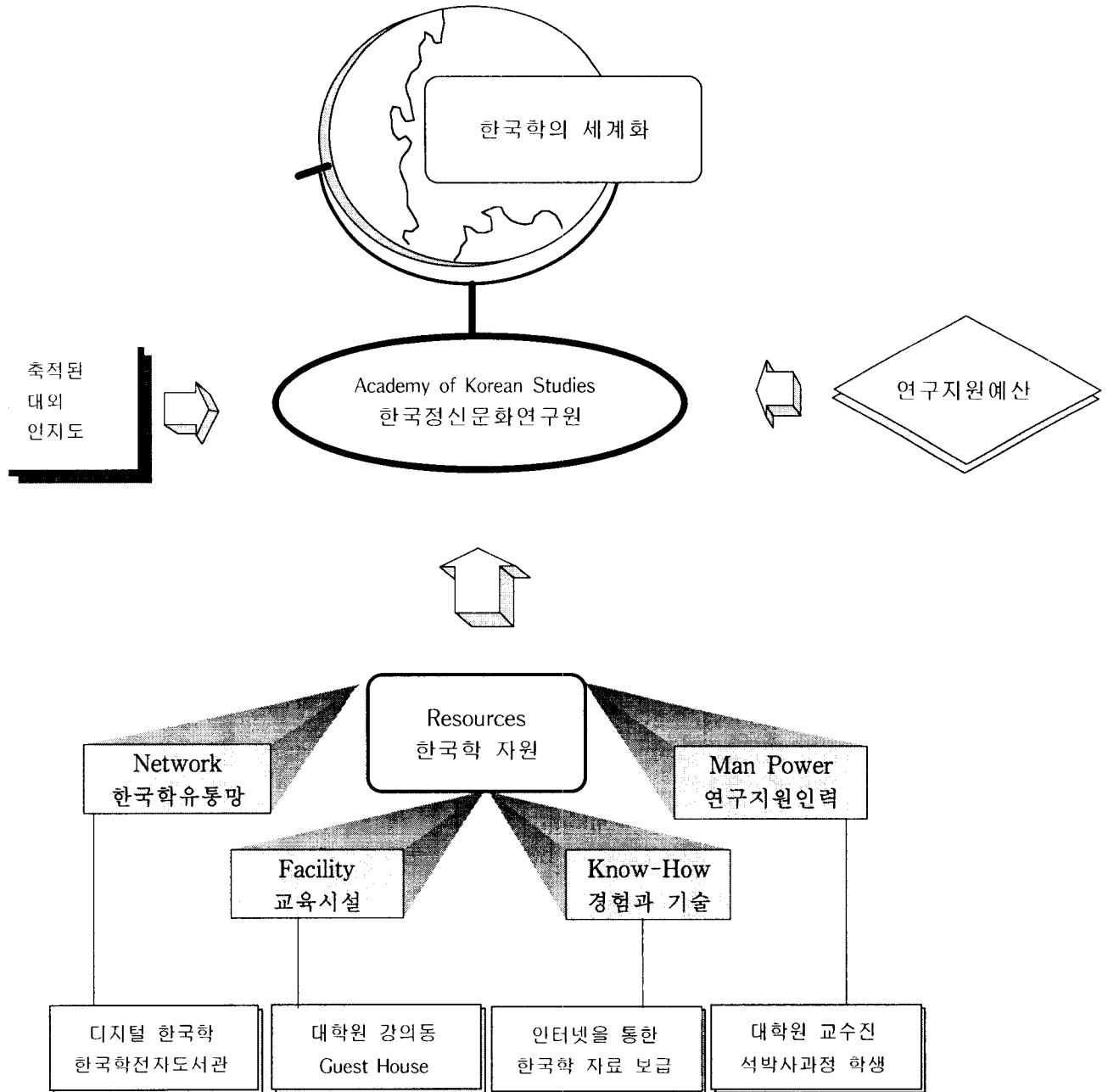
한국학 중심의 대학원대학

- ◆ 한국학의 정체성 위에서 21세기 지식기반 국가건설에 필요한 인재 양성
- ◆ 아시아의 대표적인 인문사회과학대학원으로 발전

세계와 교류하는 학제간 연구센터

- ◆ 세계의 학문과 다양하게 교류·협력하는 21세기형 집현전
- ◆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통과 현대가 자유스럽게 대화하는 학제간 연구의 아시아 모델 창출

2. 기본 구상



(다음 페이지에 계속)

II. 연구중심 대학원대학의 한국적 모델 창출

1. 목 표

- 연구 중심 교육과정(Curriculum)의 모델 개발
- 학제간 협동강의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지식인 문화의 창출
- 세계의 학문과 교류하는 국제적 성격의 대

학원대학으로 발전

2. 연도별 발전 계획

- 1999년 : 한국학 중심 대학원대학으로의 제도 정비
- 2000년 : 새로운 제도의 시행 및 시설 확충
- 2001~2002년 : 국제수준의 대학원대학으로의 위상 정립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학 과 및 전 공	모집 단위	1개(한국학과)	3~4개 계열		
	전 공	7개(철학종교, 역사, 어문고전, 예술, 사회민속, 정치경제, 교육윤리)	15개 내외의 학과 또는 전공으로 확대		
학 생 수	내국인(신입생)	120(50)	170(100)	220(100)	250(100)
	외국인(신입생)	15(5)	50(40)	80(40)	100(40)
전임교수	내 국 인 교 수	60(8명 채용)	70(8명 채용)	78(6명 채용)	78
	외 국 인 교 수	2명 채용	2명 채용	2명 채용	
초빙교수	내 국 인	3	5	8	10
	외 국 인	2	5	7	10
Post-doc	내 국 인	20	40	40	40
	외 국 인	10	20	20	20
Pre-doc	전문 연구 과정	-	20	40	60
연구조교	연구조교 (R.A)	-	15	15	15
기 타	한국 문화 강좌	40(외국인)	60	60	60
	청 계 서 당	40(내국인)	60	80	100

※ 학생 수는 현행 수업연한 기준임. 석·박사과정 통합 시 변동가능

3. 사업별 추진계획

○전공의 특성화 및 학생 정원 확대

▶목적

- 전공영역 및 교육방식의 특성화를 통한 존립가치 제고
- 21세기 지식사회를 선도할 한국학 인재 양성

▶전공의 특성화

- 학부(혹은 계열)제
 - 전통문화학부(계열)
 - 비교문화학부(계열)
 - 인문사회과학부(계열)
- 특성화된 전공영역 개발
 - 일반 대학과 비교하여 상대적 우위가

분명하고

- 미래 수요가 예상되며
- 여러 전공간의 협동 강의가 요구되는 전공
- 기록관리학, 번역학, 가족학, 公人學, 동아시아학 등

▶정원 확대 : 현재 120명 ⇒ 350명(2002년 완성)

○ 한국학 박사후 연구과정(Post-Doc.) 실시

▶목적

- 젊고 유능한 국내외 한국학자에게 연구 기회 부여
 - 본원 학제간 연구사업의 수준 향상
- ▶초빙 분야
- 전통문화의 재해석과 21세기 사회발전 (예 : 민본사상, 중용철학, 선비정신, 예

학 등)

- 동양문화의 보편주의적 인식과 동서양 대화(예 : 인권, 평화, 생태환경 등)
- 근대화 100년의 재조명(예; 전통, 모더니티, 포스트모더니티 등)
- 동아시아 발전에 관한 학제간 비교연구
- 해외 민족공동체 및 한국학의 발전
- 북한의 사회문화 공동체 연구
- 세계화에 따른 지방화·향토문화 연구
-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대중문화의 접합(영화, 음악, 연극, 미술, 무용 등)
- 장서각 및 고문서 자료 연구
- 해외 한국학 사료 조사연구

▶초빙규모

- 외국인 : 연 20명(1999년 10명 초빙)
- 내국인 : 연 40명(1999년 20명 초빙)

▶초빙기간 : 1년 단위(1회 연장 가능)

○ 외국인 한국학자 양성기능의 확대

▶목적

- 외국인 한국학자의 질적 수준 제고
- 우수한 한국학 강의 인력의 배출

▶방법

- 외국인 한국학자를 위한 한국어과정 상설화
- 외국인 학생 장학금 지급(장학기금 조성)
- 한국학 Pre-doc 과정 개설(6개월~1년)
-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의 다수 개설
- 외국인을 위한 한국학입문과정 운영
- 한국문화강좌의 내실화
- 해외 홍보의 강화
- 외국인 교수의 채용
- 외국인 Visiting Scholar제도의 활성화

○ 초빙교수제를 통한 학술교류 확대

▶목적

- 해외 석학을 초청하여 연구 및 강의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한국학의 세계화를 구현
-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교수들을 초빙하여 본원 연구 및 교육사업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학문적 수월성 제고

▶규모

-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전임교수 정원의 20% 수준을 유지함

○ 연구조교 충원 : 전공(혹은 학과) 별로 최소 1명의 전임조교 확보

4. 소요 예산

○ 인건비

▶ 1999년 : 10억5,000만원

- 교수채용 : 10명(외국인2명)×4,000만=4억원
- 초빙교수 : 5명×4,000만=2억원
- 한국학 Post-doc 초빙 : 30명×1,500만=4억5,000만원

▶ 2000년 : 20억5,000만원

- 교수채용 : 10(외국인2명)명×4,000만=4억원
- 초빙교수 : 10명×4,000만=4억원
- 한국학 Post-doc 초빙 : 60명×1,500만=9억원
- 한국학 Pre-doc 초빙 : 20명×1,000만=2억원
- 연구조교 충원 : 15명×1000만=1억5,000만원

▶ 2001년 : 23억7,000만원

- 교수채용 : 8명(외국인 2명)×4,000만=3억2,000만원
- 초빙교수 : 15명×4,000만=6억원
- 한국학 Post-doc 초빙 : 60명×1,500만=9억원
- 한국학 Pre-doc 초빙 : 40명×1,000만=4억원
- 연구조교 충원 : 15명×1000만=1억5,000만원

▶ 2002년 : 22억5,000만원

- 초빙교수 : 20명×3천만=6억원
- 한국학 Post-doc 초빙 : 60명×1,500만=9억원
- 한국학 Pre-doc 초빙 : 60명×1,000만=6억원
- 연구조교 충원 : 15명×1000만=1억5,000만원

○ 시설비

▶ 1999년 : 95억원

- 기숙사 신축 : 90억원
- 강의시설 개선 및 전산기자재 도입 : 5억원

▶ 2000년 : 50억원

- 연구동 신축 : 40억원
- 학내전산망 구축 : 10억원

▶ 한국어학당 시설 : 1억원

○사업비

- ▶1999년 : 4,000만원
 - 협동강의 지원비 : 20강좌×200만원=4,000만원
- ▶2000년 이후(매년) : 9억5,000만원
 - 외국인 학생 장학금 : 50명×1,200만=6억원
 - 협동강의 지원비 : 30강좌×200만원=6,000만원
 -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강좌 : 60명×150만=9,000만원
 - 한국어학당 운영 : 1억원(강사료 포함)
 - 한국어학당 교재개발 : 1억원(2000년)

III.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21세기 한국사회의 비전' 탐구

1. 목 표

- 한국 전통문화의 재발견
- 21세기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관 탐색
- 동아시아문화 비교를 통한 한국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해

2. 연도별 발전계획

- 1999년 :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 및 중장기 연구사업계획의 확정
- 2000년 : 중장기 연구사업의 본격화
- 2001년~ : 연구결과의 국내외 확산

사 업 명	1999	2000	2001	2002
<u>전통사상의 재발견과 21세기 한국사회의 비전</u>				
- 동양사상과 민주주의				
- 중용사상과 사회통합				
- 21세기 한국건설을 위한 전통문화 재해석				
- 21세기 사상적 전망과 동아시아 문화전통				
- 동서문명간 창조적 대화				
<u>한국의 역사문화 및 생활사에 대한 체계적 연구</u>				
- 한국 역대답사기의 종합적 고찰				
- 한국인의 생활세계 및 사회의식 조사				
- 한국사회의 장기변동과 한국인의 생애과정				
<u>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초연구</u>				
- 해외 한민족 연구				
- 사회통합과 민족화해를 위한 기본연구				
- 해외 한민족 교육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구				
- 각국 파워엘리트의 공인문화 비교연구				

3. 사업별 추진계획

○ 전통사상의 재발견과 21세기 한국사회의 비전

- ▶ 동양사상과 민주주의 (1999~2003)
 - 동양사상의 핵심내용들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재발견 혹은 재해석함으로써 서구중심적으로 전개되어온 기존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재검토
 - 최근의 '인권논쟁'이나 '아시아적 가치' 혹은 '유교자본주의론'과 관련된 논의를 학문적으로 정리
- ▶ 중용사상과 사회통합(1999~2001)
 - 동양 사상의 핵심인 중용 사상의 현대

적 변용 가능성 탐구

- 한국사회의 현실 및 미래에 주는 중용사상의 가치 탐색
- 사회 통합의 기초 사상으로서의 중용사상의 가능성 모색
- ▶ '21세기 한국'건설을 위한 전통문화의 재해석(1999~2005)
 - 민본사상, 선비정신, 예학, 실사구시, 불교적 비폭력, 자연관 등 전통사상의 재조명
 - '21세기 한국 사회가 지향할 가치관 탐색
- ▶ 21세기 사상적 전망과 동아시아 문화전통 (1999)

- 21세기 사상적 흐름은 지구적 차원에서 조망
-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전통을 재평가
- 동아시아문명권이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 동서문명간 창조적 대화와 민주적 지구공동체의 건설(2000~2004)
 - 21세기는 문명갈등의 시대임
 - 인류는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인권, 평화, 생태적 조화 등의 보편적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음
 - 동서문명간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 민주적 지구공동체의 형성방안을 탐구
- 한국의 역사문화 및 생활사에 대한 체계적 연구
 - ▶ 한국 역대 답사기의 종합적 고찰(1999~2005)
 - 역대의 답사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급함으로써 관광자원을 개발
 - 유적지 및 명승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임
 - 지역별로 나누어 7개년간 남북한 답사기 총정리
 - ▶ 한국인의 생활세계 및 사회의식 조사(1999~2004)
 - 한국인의 생활세계에 나타난 특징 및 사회의식을 사회과학적 방법에 의해 규명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인들의 가치관과 그 변화과정을 활용성 높은 데이터로 생산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음
 - ▶ 한국사회의 장기변동과 한국인의 생애과정의 변화연구(2000~2004)
 - 근대화를 경험한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을 생애사적으로 분석
 - 한국사회의 장기변동과정을 인구학적으로 설명
-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초연구
 - ▶ 해외 한민족 연구(1999~2005)
 - 세계 각 지역의 한민족의 생활세계 및 문화에 대한 종합적 조사 연구
 - 한민족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 사회통합과 민족화해를 위한 기본연구

(1999~2001)

-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정치사회적 통합을 고무하기 위한 연구
- 한민족사회의 민주적 공동체화를 지향한 연구
- ▶ 해외 한민족 교육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구(2000~2002)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해외동포교육의 추진 방안 탐색
- ▶ 각국 파워엘리트의 공인문화 비교연구(2000~2006)
 - 서양 및 제3세계 지역에서 정치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엘리트들의 가치관, 교육내용, 리더십 행동 등에 대한 연구 필요

4. 연구인력 수급계획

- 본원 대학원 교수 : 현재 50명, 2001년 78명 (외국인 6명)
 - ▶ 1999년 10명(외국인 2명) 신규채용
 - ▶ 2000년 10명(외국인 2명) 신규채용
 - ▶ 2001년 8명(외국인 2명) 신규채용
- 초빙 교수 : 1999년 6명, 2000년 10명, 2001년 15명, 2002년 20명 수준
 - ▶ 해외 석학
 - ▶ 서울대등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교수
- 포스트닥 연구원(내외국인)
 - ▶ 1999년 30명 : 내국인 20명, 외국인 10명
 - ▶ 2000년 이후 : 내국인 40명, 외국인 20명

5. 소요 예산

- 1999년 : 연구비 8억원(8개 과제)
- 2000년 : 연구비 12억원(11개 과제)
- 2001년 : 연구비 12억원(11개 과제)
- 2002년 : 연구비 10억원(9개 과제)

※ 연구인력 인건비는 II장에서 반영

IV. 한국학 기초 자료의 수집·정리·편찬·보급

1. 목표

- 인멸되어가고 있는 고문서나 고전적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해제하여 보급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촉진함
- 근·현대사 관련 문헌자료나 구술자료를 수집·정리·보급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의 주체적 해석을 도모함

2. 연도별 발전계획

- 1999년 : 고문서 및 고전적의 역주사업 출범

○2000년 : 해외 한국학 기초자료의 수집 및
편찬 사업 출범

○2001년 ~ : 해외 한국학 기초자료에 대한 정
보 제공 시작

		1999년	2000년	2001년
국학 자료 사업	고문서 수집·정리 (10개년 사업)	국학진흥사업(6차)	국학진흥사업(7차)	국학진흥사업(8차)
	고문서 역주·전산화 (10개년 사업)	-광산김씨(2책) -해남윤씨(3책)	-부안김씨(1책) -파평윤씨(1책) -의성김씨(3책)	-광주안씨(1책) -풍산유씨(3책) -병산서원(1책)
	한국 역대일기류 역주·전산화 (10개년 사업)	-치재일기(5책) -초간일기(3책) -승총명록(2책)	-송간일기(3책) -주소부군일기(2책) -영영일록(3책) -완영일록(2책)	-완영일록(10책)
해외 한국학 기초자료 수집·정리·편찬사업 (7개년 사업)		-해외자료원조사 -수집계획수립 -수집망 확보	-자료수집 및 정리 사업 시작 -편찬계획 수립	-자료정보제공 -자료가공 및 보급 시 작

3. 사업별 추진계획

○古文書 譯註 및 電算化 事業 (1999~2008)

▶필요성

- 고문서는 文·史·哲을 비롯한 전통적 인문학 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민속, 어학 등 종합적인 학문영역에 두루 이용되는 자료임
- 그러나 그 표기가 난해한 草書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樣式이 수백 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이용에 많은 제한이 있음
- 「古文書集成」(영인본)의 후속 사업으로서 그간 본원에서 수집한 고문서를 完譯·註釋, 학계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사업내용

- 고문서 正書 및 전산입력
 - 正書 - 脫草
 - 전산입력(표점)
 - 교열
- 고문서 역주
 - 번역과 주석
 - 윤문

▶기대 효과

- 연대기 자료에 의존하였던 제도사 중심의 역사이해에서 벗어나, 사회사, 경제사, 국어사, 지방사, 법제사, 미술사, 개인생활사 등의 연구에 새 새로운 지

평이 열릴 것임

○韓國 歷代 日記類 譯註 및 電算化 事業 (1999~2008)

▶필요성

- 日記類는 인간의 다양한 삶의 양태를 사실적으로 기록해 두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공刊된 것은 많지 않음
- 본원에서 수집한 수백 종의 일기류를 整理, 번역하여 공간함으로써 생활사 등 다방면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사업 내용

- 脫草 및 正書
- 번역 및 교열
- 전산입력
- 간행 및 보급

▶기대 효과

- 초서나 행서로 되어 있어 일반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일기류 자료를 각분야 연구자들이 쉽게 이용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게 됨

○해외 한국학 기초자료 수집·정리·편찬(1999~2005)

▶필요성

- 해외 한국학 기초자료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개인, 기관, 단체 등에 의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한국학 기초자료 수집활동으로 인한 낭비 요인 제거

- 한국학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급함으로써 한국학의 발전 촉진

▶사업내용

-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이 깊은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소장된 자료들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초자료의 수집, 정리, 출간
- 해외 소재 자료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 해제, 역주, 교열, 번역 등을 통한 자료의 가공과 활용도 제고

4. 소요 예산

○1999년 : 4억5,000만원

- ▶고문서 역주 및 전산화 : 1억5,000만원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수당 5,000만원
 - 연구비 2,000만원
 - 역주 및 운문비 7,000만원
 - 회의비 등 1,000만원

- ▶일기류 역주 및 전산화 : 1억5,000만원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수당 5,000만원
 - 연구비 2,000만원
 - 역주 및 운문비 7,000만원
 - 회의비 등 1,000만원

- ▶해외 한국학 기초자료 수집·정리·편찬 : 1억 5,000만원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수당 5,000만원
 - 연구비 2,000만원
 - 해제, 번역, 역주, 자료 수집 4,000만원
 - 출장여비 3,000만원
 - 회의비 등 1,000만원

○2000년 이후(매년) : 10억원

- ▶고문서 역주 및 전산화 : 3억원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수당 5,000만원
 - 연구비 2,000만원

- 역주 및 운문비 7,000만원
- 전산입력비 5,000만원
- 인쇄비(5책) 7,000만원
- CD롬 제작 3,000만원
- 회의비 등 1,000만원

- ▶일기류 역주 및 전산화 : 3억5,000만원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수당 5,000만원
 - 연구비 2,000만원

- 역주 및 운문비 7,000만원
- 전산입력비 3,000만원
- 인쇄비(10책) 1억 5,000만원
- CD롬 제작 2,000만원
- 회의비 등 1,000만원

- ▶해외 한국학 기초자료 수집·정리·편찬 : 3억5,000만원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수당 7,000만원
- 연구비 3,000만원
- 해제, 번역, 역주, 자료 수집 6,000만원
- 출장여비 3,000만원
- 인쇄비(10책) 1억5,000만원
- 회의비 등 1,000만원

V. 한국학 국제교류의 강화

1. 목표

- 해외에서의 한국학 강의를 위한 교재 개발 및 한국학 기초 자료의 외국어 번역을 통한 한국학의 저변 확대
- 세계적 수준의 한국학 영문학술지 발간
- 아시아 민족간의 문화적 유대강화를 위한 '아시아 문화포럼' 창설

2. 연도별 계획

- 1999년 : 해외한국학 지원사업의 본원 중심 통합
- 2000년 : 한국학교재개발 및 번역사업의 본격화
- 2001년 ~ : 한국학 분야의 세계적 중심기관으로 발전

사업명	1999	2000	2001	2002
한국학 영문학술지 발간				
한국학(국문, 영문) 교재개발 및 번역				
아시아문화포럼 창설				

사 업 명	1999	2000	2001	2002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 통합운영				
한국학국제학술회의 개최				

3. 사업별 추진계획

○ 한국학 영문학술지 발간(계속사업)

▶ 학술지명 : The Review of Korean Studies(1998년 창간)

▶ 목 적 :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국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를 간행·보급함으로써 한국학의 수준 향상 및 저변확대에 기여

▶ 발간 계획

- 1999년 : 반년간
- 2000년부터 : 계간

○ 한국학 교재(국문, 영문) 개발(1999~2003)

▶ 필요성

- 한국학 강의에 사용할 대표적 교재가 없음
- 영문과 국문 한국학 교재를 개발하여 국내외 한국학 관련 대학에서의 한국학 강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사업 내용

- 한국학 15개 분야별 연구입문서 편찬(국문, 영문)
 - 역사, 지리, 한국어,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종교, 민간신앙, 민속, 사회, 사상, 경제, 과학
- 분야별 기본 용어사전 편찬

▶ 개발 계획

- 1999 : 예비연구 및 개발 계획 수립
- 2000 : 분야별 집필
- 2001 ~2002 : 영문번역, 운문, 교열
- 2003 : 편집, 간행

○ 한국학 진흥 아시아 청년학생 교류사업

▶ 목 적

- 한국학의 세계화
- 아시아 국가간의 문화적 유대 강화
- 아시아 학술·문화의 중심지로서 한국의 위상 제고

▶ 주요 사업 내용

- 아시아 문화포럼 개최 : 연1회(제1회 포럼은 2000년)

• 아시아 청년 학술 문화상 수여(제1회는 2000년)

• 외국인을 위한 한국학 장학 기금 조성 (100억원 목표)

▶ 추진 계획

- 국가별 대표 기관 선정 및 준비위원회 구성 : 1999년7월
- 제1차 준비회의, Agenda 확정 : 1999년 10월
- 제2차 준비회의, 발표자 및 프로그램 확정 : 1999년12월
- 제1회 아시아 문화포럼 개최 : 2000년4월, 서울

○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개최

▶ 목 적

- 국내외 한국학 연구성과 종합
- 정신문화 전통을 21세기 건설 과제와 연결시키기 위한 종합 토론의 장 제공

▶ 연 회

○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의 통합(1999)

▶ 필요성

-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이 여러 기관에 의해 수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중복지원, 사후관리의 부실 등의 문제가 심각함
- 관련 기관간의 명확한 업무분장과 상호 정보교환이 시급함

▶ 통합 방안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해외 한국학 강의 교수 파견, 학술연구지원, 한국학 전공학생 단기연수, 학술회의 지원 등의 사업은 전문인력(교수 및 대학원생), 교육시설, 연구시설 등을 갖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국제교류센터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장기적으로는 국제교류재단에서 수행하는 일부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외국인을 위한 포스트닥 및 프리닥 제도, 한국학 전공자 초청사업 등)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관리토록 부서간의 업무 조정

이 요망됨

4. 소요 예산

- 1999년 : 3억7,000만원
 - ▶ 영문학술지 발간 : 1억 2,000만원
 - ▶ 한국학 교재개발 : 1억원(기초연구)
 - ▶ 아시아문화포럼 준비 : 5,000만원
 - ▶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 1억원
- 2000년 : 6억4,000만원
 - ▶ 영문학술지 발간 : 2억4,000만원
 - ▶ 한국학 교재개발 : 2억원(집필)
 - ▶ 아시아문화포럼 개최 : 1억원
 - ▶ 한국학국제학술회의 : 1억원
- 2001년 : 5억4,000만원
 - ▶ 영문학술지 발간 : 2억4,000만원
 - ▶ 한국학 교재개발 : 2억원(번역)
 - ▶ 한국학국제학술회의 개최 : 1억원
- 2002년 : 6억4,000만원
 - ▶ 영문학술지 발간 : 2억4,000만원
 - ▶ 한국학 교재개발 : 2억원(윤문, 교열)
 - ▶ 아시아문화포럼 개최 : 1억원

▶ 한국학국제학술회의 개최 : 1억원

VI. 한국학 종합 정보망 구축

1. 목 표

- 한국학 관련 정보의 종합네트워크(집현전 Net) 구축
- 한국학 기초자료의 전산화(한국학전자도서관)
- 국내외 학자 및 연구기관 간의 학술정보 교류를 지원하여 한국학의 국제화·활성화를 꾀함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보완 및 후속 사전의 편찬

2. 연도별 발전계획

- 1999년 : 한국학 전자도서관 구축사업(1차 및 2차) 완성, 서비스 시작
- 2000년 : 한국학 종합정보망(집현전 Net) 구축사업 시작, 한국학 전자도서관 구축사업(3차) 시작
- 2001년~2003 : 한국학 종합정보망 및 전자도서관 구축 완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증보판 간행 향토문화대전 편찬 본격화

사 업 명	1999	2000	2001	2002
한국학 종합전산망 구축				
한국학 전자도서관 구축				
향토문화대전 편찬(15개년 사업)				
한국고지명사전 편찬(10개년 사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증보판 간행				
한국문헌대사전 편찬				

3. 사업별 추진계획

○ 한국학 종합 전산망 구축(1999~2003)

▶ 필요성

- 해외 소재 한국학 기초자료에 관한 정보의 체계화가 시급함
- 한국학의 확산 및 세계화를 위해 한국학연구자 및 단체간의 정보 및 자료교류가 요구됨

▶ 주요 내용

- 해외 소재 한국학 기초자료에 관한 정

보의 D/B화

- 자료 소장자 및 기관 목록
- 자료 목록

- 국내외 한국학 관련 연구기관 및 개인에 관한 정보의 D/B화
- 한국학 관련 연구문헌의 D/B화
- 한국학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 사업 기간 : 5년

○ 한국학 전자도서관 구축(1999~2003)

▶ 사업 내용

- 한국학 관련 문헌자료의 디지털화
- 검색과 유통을 위한 표준 마크업 (SGML) 문서로 재조직
- 한국학 관련 자료의 이미지DB, 음성 DB, 동영상DB 구축
- 다양한 DB자료의 유기적 연결을 통하여 한국학 전자도서관 서비스

▶사업 기간 : 5년

○향토문화대전 편찬사업(1999~2015)

▶필요성

- 급속한 산업화와 국민적 무관심으로 소멸되어가는 향토문화를 발굴하여 보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시급함
- 조선조 [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 발간 이후 200년간 종합적인 향토문화 체계화 사업이 중단되어 왔음
- ‘향토문화대전’의 편찬은 문화를 통한 지역통합과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이바지 할 것임
-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한국문화를 총괄하여 보여주는 ‘문화지도’의 제작이 시급히 요청됨

▶사업 내용

- 전국 462개(북한 209개 포함) 시·군·구의 향토문화를 발굴·수집
- 멀티미디어 환경에 맞도록 집대성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 주제별 전국 각 지역의 문화를 시리즈로 제공
- ‘한국문화지도’를 제작 보급함으로써 문화경쟁시대에 대비함
- 200여권(권당 600면) 분량의 대형 사전으로 편찬

▶편찬 계획

- 준비단계(1999~2000) : 학술회의(향토문화의 계승과 정보화)등을 통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사전 홍보
- 제1단계(2001~2002) : 기구, 규정, 인력, 사업계획 확정
- 제2단계(2003~2012) : 편수
- 제3단계(2013~2015) : 발간(전200권)

▶예산 : 문화관광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간의 협조 필요

(본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 韓國古地名辭典 편찬사업(1999~2008)

▶ 필요성

- 지명은 한국이라는 공간을 역사적, 문화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본 요소임
- 통일문화시대,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문화적 산물인 지명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시급함

▶사업 내용

- 고문헌에 나타난 지명 총정리
- 지명의 典據, 사용시기, 현재의 추정지명 명시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증보판 간행(1999~2001)

○ 韓國文獻大辭典 편찬사업(1999~2001)

4. 소요 예산

○1999년 : 11억원

- ▶ 한국학 종합전산망 구축 : 2억5,000만원
- ▶ 한국학 전자도서관 구축 : 7억원
-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증보판 간행 및 한국문헌대사전 편찬 : 13억
- ▶ 향토문화대전 편찬 준비 : 6,000만원(학술회의)
- ▶ 한국고지명사전 편찬 : 9,000만원(예비연구)

○2000년~2003년 : 매년 13억원

- ▶ 한국학 종합전산망 구축 : 년 2억원
- ▶ 한국학의 지식 정보화 및 서비스 : 년 10억원
-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증보판 간행 및 한국문헌대사전 편찬(2000~2001) : 년 13억원
- ▶ 한국고지명사전 편찬 : 년1억원(10개년 사업)

VII. 시설 보완

1. 한국학대학원 기숙사 및 Guest House 신축(1999)

○필요성

- ▶ 한국학대학원에 재학중인 국내외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없음
- ▶ 한국학 연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학자들을 위한 종합 시설이 없음
- ▶ 한국학 전문가들을 위한 종합 연구 및 생활 시설이 필요함

○ 신축규모

- ▶ 지하 1층, 지상 4층 한식 기와지붕
- ▶ 건평 약 2,500평
- ▶ 수용인원

- 기숙사 : 300명(150실)

- Guest House : 150명(100실)
- 주요 시설
 - ▶기숙사
 - 숙소 : 150실(2인 1실, 국내학생 및 외국인 학생)
 - 휴게실 : 2실
 - 소회의실 : 2실
 - 화장실 : 4실
 - 샤워장 및 세탁실
 - 간이취사장
 - 컴퓨터실
 - ▶Guest House
 - 숙소 겸 연구실 : 100실(장기체류 50, 행사용 50)
 - 휴게실 : 1실
 - 소회의실 : 1실
 - 컴퓨터실 : 1실
 - 간이취사장 겸 세탁실 : 1실
 - ▶공동이용시설
 - 어학실습실
 - 식당(200명 수용)
 - 소형 체육시설
 - 기계, 전기실
- 2. '장서각'(고문서박물관) 신축(1999)
 - 필요성

- ▶장서각 소장 귀중 자료를 과학적으로 보관하는 동시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 ▶고문서 및 고전적의 과학적 보관과 정리 작업을 하기 위한 전용 시설이 필요함
- 신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한식 기와지붕
 - ▶건평 약 2,000평
- 주요 시설
 - ▶서고 및 전시실 : 2개층
 - ▶사무 및 작업실 : 1개층
 - ▶부대시설 : 1개층(지하)
- 3. 연구동 신축(2000)
 - 현황
 - ▶현재 교수 54명이 도서관, 행사용 숙소 등 4개 건물에 분산 배치되어 있음.
 - ▶학제간 연구활동의 진작을 위해 연구실을 집중배치할 필요가 있음.
 - 신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한식 기와지붕
 - ▶건평 약 3,000평
 - 주요 시설
 - ▶연구실 : 90실
 - ▶강의실 : 소형 8, 중형 4, 대형 2
 - ▶휴게실 : 교수휴게실 1, 학생휴게실 1

◇ 시설 보완 계획 총괄표 ◇

시설종류	현황	수요	계획
기숙사	• 전용기숙사 없음 • 직원숙소 1동을 임시 사용중(60명 수용)	• 최소 300명 사용 규모	• 기숙사, 국제관 복합 건물 신축 • 250실 규모
국제관 (Guest House)	• Guest House 없음 • 직원숙소 1동을 임시 사용중(10실)	• 100실 규모	• 약90억원
연구동	• 연구동, 도서관, 대학원 건물, 숙소등에 분산(65실)	• 90실(조교실포함)	• 행사용 숙소 2동 연구동으로 개축('99)
강의시설	• 대학원건물 1층 사용중 • 8개 강의실(120명수용)	• 25개(500명수용)	• 연구동신축 • 약40억원
'장서각' (고문서박물관)	• 장서각자료, 고문서류 도서관에 분산 보관 • 고문서 전용시설 없음	• 고문서 전용 시설 필요	• 약40억원
전산시설 보완	• 학내 전산망 취약	• 대학원 교육 및 연구용 전산시설 보완 필요	• 전산시설 및 전산망 구축 • 약20억원

◇ 연도별 시설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투자액	연 도 별			
		1999	2000	2001	2002
국제관 및 기숙사 신축	9,000	5,000	4,000		
'장서각'(고문서박물관)신축	4,000	2,600	1,400		
연구동 신축	4,000		2,000	2,000	
전산시설구축	2,000	500	1,000	500	
계	19,000	8,100	8,400	2,500	

VIII. 소요 예산

1. 사업별, 연도별 예산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계
<u>인건비</u>	1,050	2,050	2,370	2,250	7,720
교수채용(내외국인)	400	400	320		1,120
한국학 Post-doc(내외국인)	450	900	900	900	3,150
한국학 Pre-doc(내외국인)		200	400	600	1,200
초빙교수(내외국인)	200	400	600	600	1,800
연구조교채용		150	150	150	450
<u>사업비</u>	3,950	5,290	5,090	5,190	19,520
협동강의 지원	40	60	60	60	220
외국인학생 한국학장학금	600	600	600	600	2,400
한국문화강좌 확대(외국인)	90	90	90	90	360
한국어학당 개설	100	200	100	100	500
연구사업	1,200	1,400	1,400	1,400	5,400
한국학자료사업	450	1,000	1,000	1,000	3,450
한국학의 세계화 사업	370	640	540	640	2,190
한국학 종합 전산망 사업	1,100	1,300	1,300	1,300	5,000
<u>시설비</u>	8,100	8,400	2,500		19,000
기숙사 및 Guest House	5,000	4,000			9,000
학내전산망 구축	500	1,000	500		2,000
'장서각'(고문서박물관)	2,600	1,400			4,000
연구동		2,000	2,000		4,000
계	13,100	15,740	9,060	7,440	46,240

2. 예산 확보 방안

○ 인건비

▶ 교수 및 연구조교 채용

- 출연금 : 교육부,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협조 요망

▶ Post-doc., Pre-doc., 초빙교수제 도입

-출연금

-교육부 정책연구비 : Post-doc.

-교육부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 예산 : Post-doc., Pre-doc. 초빙교수제 도입

○사업비

▶출연금

- ▶ 교육부 정책연구비
- ▶ 교육부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 예산
- ▶ 정보통신부 정보화근로사업비 : 한국학종합전산망 구축사업
- ▶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수탁

○ 시설비

- ▶ 출연금
- ▶ 교육부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 예산

(金許男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한국학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타 기관에서도 한국학 관련 DB를 구축 중에 있어 중복지원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를 협의하여 통합운영 할 방안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실 것?

(답 변)

1. 본원은 한국학 관련 주요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세계 한국학연구자들을 지원하며, 국내의 연구성과를 전세계로 확산시키고, 해외 한국학연구단체들을 연계시키는 한국학종합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또한, DB의 통합운영이란 현대의 사회성격에 맞지도 않습니다. 각기관에서 전문 DB를 개발하여 상호 보완하면서 긴밀한 연결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한국학DB개발
 - 현재는 정부의 지원이 없어, 삼성SDS주식회사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국학의 일부분만을 DB화하고 있으며, 타기관과 중복으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 10월15일 오픈하게 되는 <한민족 새천년/www.kor2000.com>은 본원, 서울대 사범대학, 중앙일보, 삼성SDS가 공동으로 전세계 한민족이 인터넷으로 교류하기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로서 그 경우에도 콘텐츠의 내용을 4개 기관이 분담하여 개발하였고 중복투자는 없었습니다.
 - 앞으로 정부의 지원만 있다면 국내·외 각대학의 연구소와 관련학회를 연계시키는 한국학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정보망이 구축된다면 각 대학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게 되므로 중복투자는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4. 한국학전자도서관
 - 우리나라에 전자도서관은 많지만 한국학이라는 특수분야로 특화된 곳은 거의 없으며, 특히

조선왕실도서관인 장서각이 있지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만일 장서각에 소장된 자료들이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전자도서관이 구축된다면 이런 지리적 난점을 상당부분 해소해줄 것이며,

- 장서각에 소장된 자료 중 상당부분이 규장각 자료와 중복되지만 고서를 DB화하는 작업을 본원이 먼저 수행하였으므로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규장각측에서 DB를 구축할 때 유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학진흥연구사업으로 수집되는 고문서들은 거의 유일본들이어서 중복투자의 염려는 없습니다.
- 한편, 본 전자도서관은 10여년 이상을 투자하여 축적한 각종 민요 녹취자료, 구비문학 녹취자료 등의 음성자료들도 같이 서비스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도서관과는 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정문연 특성은 대학원 중심인가, 연구기능 중심인가?

(답 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특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현재적인 관점에서 발견하고 미래의 안목에서 재창조하기 위해 한국학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학의 개별적인 학문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대학원이나 기관에서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개별적인 한국학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한국문화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전적으로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 연구원에서는 이미 「한국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방언조사연구」, 「한국구비문학계」, 「한국인물대사전」 등을 발간하여 학계에 나름대로 공헌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연구 성과들은 여타의 대학이나 기관에서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방대한 사업으로서 한국학연구의 중심이자, 한국문화의 총체적 연구기관인 본 연구원이기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별연구와는 다른 것으로 21세기를 맞이하는 현재 그 의미는 더욱 강조되리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연구원은 이러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학의 연구를 위해 대학원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본 연구원은 현재 연구원체제에서 대학원대학 중심체제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대학원 학칙을 개정하여 대학원편제를 한국학연구를 위한 교육적 기능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1개학과 7개 전공(세부 13개 전공)에서 각각의 전공을 독립시켜 4개 학부 13개 전공으로 그 특성을 적극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차세대 한국학 연구인력인 대학원생들을 개별전공영역 내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접학문과 연계하여 학제간 교육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개편한 것입니다. 또한 교육방식에 있어서도 그 동안 한국학 대학원의 특징 중에 하나였던 학제간 연구와 교육을 강화시켜 이미 1999학년도 제1학기부터 협동강의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동강의는 하나의 대주제에 대하여 인접학문분야의 2인 이상의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육방식으로 대학원생들에게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협동강의는 현재 다른 대학원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학대학원만의 독특한 교육방식으로 시작한지 이제 두 학기이지만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 및 학생들의 협조하에 현재 전체 강의의 25%가 협동강의 형태로 진행중이며, 매 학기 그 결과를 평가하여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원생들이 교수과제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연구참여학점제를 전부터 시행하여 단순한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원대학으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본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원님의 지적은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그와 같은 우려가 재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의)
 ○연구자 선정에 있어 전국적으로 공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연구사업 평가기능 강화 방안은?

(답 변)

1. 학계의 원로로 구성된 '연구운영위원회'를 두어 연구사업의 장단기 계획 및 기본방향 결정,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연구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
2. 연구결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는 연구결과 평가자를 '연구사업심의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연구사업심의위원장(연구처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자는 비공개합(연구업무규정 제18조). 우선 전국 연구자의 연구업적 및 인적 사항(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자 정보 참조)을 토대로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서 연구과제별로 평가자를 3~4인 추천하고, 이 가운데서 연구사업심의위원장이 최종 선정할 예정임.

3. 연구사업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모에 의해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모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질 의)
 해외 학술교류사업 강화 방안은?

(답 변)

1. 해외석학 초청지원사업
 해외에서 명망있는 인문·사회계열의 우수한 석학들을 본원에 초빙하여 이들이 본원의 교수들과 공동발표, 토의, 공동집필 등의 과제를 수행케 함으로써 국내외 한국학 연구 인력의 확충과 연구수준의 질적 고양을 도모함과 아울러 본원 교수들에게는 해외정보 및 학문교류의 기회확대를 제공함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2. 해외 한국학 연구인력 유치사업
 기존에 한국어과나 한국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또는 한국학 연구기관과 교수 및 학생, 또한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비 한국학 전공자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해외한국학 연구인력의 저변 확대를 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외국인학생의 정원은 현재 본원의 석, 박사 정원 각 60명씩의 20%였으나 대학원 학생정원이 항상 조정되고, 아울러 외국인학생정원의 상한선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외국인을 겨냥한 영어강의 개발 등의 계획을 본원 교학처와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 가칭 '한국학학술상' 제정 및 운영사업
 해외의 한국학 연구학자와 소장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학 학술 (특히 인문, 사회분야) 부문 시상제도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해외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장려, 촉발시키는 계기를 제공하며, 아울러 한국과 한국학의 대외 위상을 높이는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질 의)
 전산정보화 사업 관련, 삼성측의 정보사용권

에 대한 입장은?

(답 변)

1. 1996.12.30 “디지털데이터개발비용”으로 1997~2000년(4개년)간 총 34억6,800만원을 삼성전자(주)가 지원하기로 합의
 1997년 97년도분 8억6,000만원 지원
 1998년 IMF사태로 지원 중단
 1999.1.25 삼성SDS(주)가 “디지털데이터개발비용”으로 99년 1억5천, 2000년 1억5천만을 지원하기로 재계약함.
 등으로 지원금액이 변경된 것은 사실입니다.
2. 위와 같은 삼성SDS(주)의 지원금액으로 개발된 한국학데이터베이스의 지적소유권은 본원과 삼성SDS의 공동소유입니다. 그리고 사용된 원천자료의 저작권은 본원 또는 원천자료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삼성SDS가 타전자매체로 제작할 때에는 본원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현재 DB화된 저서와 자료는 인터넷과 유니텔을 통해 무료사이트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4. 본원 또한 현재의 삼성SDS의 지원금액만으로는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 하기에 역부족이어서 정부의 지원하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한국학 관련 자료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서비스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질 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수입금 사용 내역은?

(답 변)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판매수입금 원금을 사업운영비로 지출한 정책적 근거
 가. 대통령 지시사항 (1992.3.5)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초판
 본 완간에 따른 편찬사업 추진 결과보고 및 백과사전 봉정시
 - “초판내용이 완벽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계속 수정·보완할 것이며, 특히 미개발된 한국문화의 정수를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백과사전으로 발전시킬 것”
 - “계속사업은 가급적 국고보조없이 판매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추진할 것”
 나. 제12차 편찬사업추진위원회(1992.3.11) 의결

사항 (위원장 : 교육부장관)

- 백과사전판매수입금은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이자수입 등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토록 함.

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정관 제 7조

- 제7조(운영재원)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재산에서 생한 과실
- (2) 운영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또는 기부금
-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판매수입금 및 이에서 생한 과실
- (4) 기타 수입

2. 지금까지의 증보개정 사업의 중간보고

<사업 계획>

가. 사업 개요

- (1) 사업기간 : 1992~2001(10개년)
- (2) 시행근거 : 1992.3.11 편찬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의결함.
- (3) 사업 일정
 - 제1단계(준비업무) : 1992~1994
 - 제2단계(편수업무) : 1995~1999
 - 제3단계(발간업무) : 1999~2001(2000년은 편수·발간업무 병행)
- (4) 발간 규모
 - 권수 : 30권(권당 920면 기준)
 • 본책 27권, 부록 3권(권1 연표, 권2 편람, 권3 색인)
- (5) 항목수 : 72,000항목
 • 원고량 : 420,000매
 • 도 판 : 45,000종

나. 증보개정 사항

(1) 완전 증보 및 개정사항

- 새로운 사회변화 반영 : 북한 관련 인물, 새로운 문화재, 12·12사건·광주민주화운동 등
- 새로운 연구성과 반영 : 철학·정약용·임술민란 등
- 새로운 자료 발굴 및 누락 : 문집류 등 희귀본과 선사유물유적, 중요문화재.

(2) 부분적 증보 및 개정사항

- 시대적인 변화 반영 : 향토 항목 가운데 행정구역의 통폐합과 승강의 변화, 명칭의 변화 반영, 현대 항목의 초판이후 1995년까지의 통계수치의 변화 등

- 연구성과 및 새로운 사실의 반영 : 전통 항목 가운데 일부 연구성과 및 새로이 추가 발견된 사실의 보완.

- <초판본> 오류 내용 수정, 보완 : 외부 독자의 오류 지적이나 필자들의 정정요구를 반영하고, 편수연구직의 자체 검토에 의한 오류·누락 사실의 정정.

<실 적>

가. 새로운 항목의 선정 및 집필 : 8,752항목 38,028매

나. <초판본> 항목의 보완

- 외부 학자 채·보완 집필 : 2,195항목 23,693매

- 외부 학자 교열 : 6,028항목 59,640매

- 편수연구직 자체 보완 : 49,161항목 221,319매

3. 추진 계획 :

가. 예산 및 인원 : 본 사업을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과실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또한 인원의 경우, 현재 본원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편찬팀의 인원도 감축하여 편수연구직 10명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인원도 정규직화를 위해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추진 일정 및 방법 : 붙임 「향후 추진 계획」 참조

나. 증보개정판(전30권)을 자체출판하기 위한 출판비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출판을 고려하고 있으며, CD-ROM으로 출간하는 방안을 논의 계획하고 있습니다.

○ 향후 추진 계획

구분	업 무 명	계획량 (잔여량)	1999년		2000년				2001년				비 고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본 책	항목	1,995	1,000	995										* 부족한 관련 인물 및 1999년 시한 추가 항목 포함	
	원고수합(매)	8,279	3,000	3,279	2,000									* 위와 같음(3,000매)	
	원고검토(매)	4,758	3,000	1,758	(3,521)									* ()은 추가 예상 원고량	
	원고수정입력(매)	59,511	19,511	40,000	(3,000)									* 위와 같음	
	필자교정(매)	63,000		60,000		(3,000)								* 위와 같음	
	원고완성	131,741		70,000	61,741									* 위와 같음	
	사 진(중)	442	150	100	100	92									
	지도·도면(중)	4,773		1,000	1,500	1,500	773								
	원고집필(매)	15,000			3,000	6,000	6,000								
	원고완성(매)	25,000			5,000	5,000	5,000	10,000							
부 록	지도제작(중)	90			58	32									
	원고집필(매)	7,000				3,000	3,500	500							
	원고완성(매)	25,000			2,000	8,000	7,500	7,500							
	색인어선정(항목)	250,000							150,000	100,000				* CD-ROM용 항목분류 작업(시소로스)은 별도 추진	
편집 제작	원고완성(매)	25,000							15,000	10,000					
	편집(면)	27,600													
	교정(면)	27,600													
제작(권)	30														

* 협력사와 협의하여 진행
 - 편집 및 제작은 위탁 수행
 - 교정은 내부 수행
 * 총 30권 제작 완료 및 발간 시한 2001년 말

(질 의)

한국학대학원 특성화 방안은?

(답 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현재적인 관점에서 발견하고 미래의 안목에서 재창조하기 위해 한국학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학의 연구를 위해 한국학대학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연구를 위한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대학원학칙을 개정하여 대학원편제를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1개학과 7개 전공(세부 13개 전공)에서 각각의 전공을 독립시켜 4개 학부 13개 전공으로 그 특성을 적극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차세대 한국학 연구인력인 대학원생들을 개별전공영역 내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접학문과 연계하여 학제간 교육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개편한 것입니다. 또한 교육방식에 있어서도 그동안 한국학대학원의 특징 중의 하나였던 학제간 연구와 교육을 강화시켜 이미 1999학년도 제1학기부터 협동강의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동강의는 하나의 대주제에 대하여 인접학문분야의 2인 이상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육방식으로 대학원생들에게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협동강의는 현재 다른 대학원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학대학원만의 독특한 교육방식으로 시작한 지 이제 두 학기이지만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 및 학생들의 협조하에 현재 전체강의의 25%가 협동강의 형태로 진행중이며 매학기 그 결과를 평가하여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원생들이 교수과제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연구참여학점제를 전부터 시행하여 단순한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대학원과의 차별화 및 본 연구원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한국학대학원 2000학년도 대학원생 모집에서는 '한국문화(가칭) 협동과정'을 신설하여, 한국학 및 한국문화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인력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인으로 한국문화를 해외에 홍보하고자 하거나, 외국인으로 한국학 및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인력을 모집하여,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배출된 우수한 인력이 해외에서 한국학 및 한국문화를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석·박사과정에서 필수과목인 「한문강좌」를 이수토록 하여 한문원전에 대한 해독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있으며 한국 인문·사회과학제분야의 기초지식을 습득케 하는 「한국문화특강」을 필수과목으로 이수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박사 수학기간 동안 매년 한국문화유적을 두루 이해할 수 있는 국내학술답사를 실시하고 있고, 박사과정 3차 학기를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2~3주간 해외학술답사를 실시하여 강의실에서 습득할 수 없는 '역사와 문화'를 체험토록 하여 우리문화와 외국문화를 비교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문화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고 국제사회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석, 박사 정규과정 이외에도 한국학 연구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고전국역과 문헌자료 판독·정리 등 전통문화를 계승할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전통식 한문교육기관인 「청계서당」을 1997년부터 개설·운영하고 있고 매년 하계방학 중 외국의 한국학 학자 및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화강좌」를 4주간 개설·운영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내국인 학자 및 대학원 학생과의 학문교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학원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申樂均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교수진 수급의 경직성 개선 계획은?

(답 변)

○ 지적하신 대로, 본 연구원의 신규교수인력충원은 지난 '97 이후 없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사고력을 갖춘 젊은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원 교수들의 급여수준이 일반대학에 비해 열악하고 최근의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인해 우수교수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7년12월 현재 67명이던 교수직 인원이 1999년10월 현재 52명으로 감소한 것은 교수승진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심사를 거쳐 교수로 승진한 부교수 및 조교수 인력의 부족은 경직성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인력의 신규채용에 대한 필요성은 본 연구원에서도 절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학년도부터 대학원편제를 개편하면서 전공이 13개 세부전공으로 분리되면 교수인력의 수급은 더욱 절실히 집니다. 이에 따라 200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신규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영문백과사전 발간 지연 사유는?

(답 변)

○연기된 구체적인 사유 :

- 1997년도에 영문번역·교열·윤문을 완료하고 1998년도에 간행 작업(전산조판~인쇄제작)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수합된 영문원고를 검토(본원, 국제교류재단)한 결과 (1998년3월) 그대로 책을 간행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간행일정을 연기하고 온전한 영문으로 총괄 검토보완하여 간행하기로 해외문화홍보원 및 지원기관과 합의하였습니다.
- 이에 본원은 외국의 전문 editors에 의한 영문원고 총괄감수 추진계획(소요 예산 7,600만원)을 작성하여 지원기관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원 기관의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한국언론회관의 사정 (통폐합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예산지원이 늦어진 관계로 1999년9월 현재에 이르러 영문원고 총괄감수작업에 착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질 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 증보판 발행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답 변)

1. '91년 초판본(전27권) 발간 후 '9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증보개정판 발간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1년에 제1차 증보개정판 전30권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1차 증보개정판은 초판본 발간 이후 10년간의 새로운 사회변화 사항과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수정·증보할 계획입니다.
2. 증보개정판(전30권)에 대한 CD-ROM의 출간은 민간에 위탁해 발간하여 국민들이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CD-ROM의 제작 자체보다 초판본의 수정 보완하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정 증보는 향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2차, 3차, 4차 개정

판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따라 CD-ROM의 수정도 함께 병행될 것입니다.

(질 의)
정문연 명칭 개정에 대한 입장은?

(답 변)

1. '88~'96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한 본원 명칭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명칭변경 및 위상정립에 관한 워크샵을 수차에 걸쳐 개최하는 등 학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2. 본원 제43차 정기이사회('97.12.16)에서 명칭을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교육부에 명칭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원 육성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음.
3. 이후 주변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본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학계의 의견과 '98.9.30. 김종필 국무총리의 내원시 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 '98년 국정감사시 일부 위원님께서 현재의 명칭을 고수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표방한 바 있어서 본원 제46차 정기이사회('99.3.17)에서 이사 전원의 합의로 육성법 개정 요구를 철회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朴承國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기획협력실장 인사는 원장의 뜻인가, 외부의 뜻인가?

(답 변)

1. 배경 : 본원 구조조정
 - '연구원의 대학원대학화'라는 연구원 기본발전 방향에 따라 본원의 직제 및 조직을 개편('99.3.1) 기획처를 폐지하고 기획처 소관업무 중 연구 기획 업무와 교수업적 평가 업무는 각각 연구처와 교학처로 이관하였음.
 - 기획협력실을 신설하여 기획처 소관 업무 가운데 나머지 자체감사, 대외협력, 홍보, 예산, 규정관리, 법인사무 등의 업무에 한정하여 소관케 하였음.
 - 그리고 이상과 같은 업무들의 성격에 비추어 실장에(원내 교수에 국한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를 일정 기간의 계약직으로 초빙, 임용할 수도 있게 하였음.
2. 기획협력실장 발탁
 - 백계문 실장 : 서울대 법대 졸업, 민주화운동에

현재 우리의 대학원입학생의 출신은 모교 출신자 분포가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본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결과에 드러난 62%('96~'98)의 비율은 타 대학원에 비하여 오히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특히 박사과정은 석사과정과 연계하여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관행으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우려하신 모교 출신자의 집중적인 선발현상에 따른 학문적 발전의 저해와 사회조직화를 주의하여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검토하여 혹시 그러한 우려가 생길 제도적인 결함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고문서 수집 보존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은?

(답 변)

1. 현 황

고문서 사업은 자료의 수집 대상지역이 전국에 걸쳐 있고, 대상 자료가 고문서 고서를 비롯한 각종 고 전적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 인력수급, 예산 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문서는 하루가 다르게 유실되어 사업의 시급성에 있어서는 촉각을 다투는 문제이다. 심지어 10년전에 정리·촬영한 문서가 최근에 도난을 당하여 본원의 필름 자료가 유일한 자료로 남게된 경우도 있다.(예 : 구례운조루 고문서 약 1만여점)

고문서 조사처 약 1,500 여곳 가운데 98% 정도가 1번 이상 도난을 상한 상태이고, 자연재해로 인한 망실을 합하면 거의 대부분의 소장자가 피해를 당하였다. 이같은 전적의 망실은 정신문화의 토대를 상실하는 문제로서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

고문서 업무를 담당할 인력양성 또한 매우 긴급하다. 고문서는 한문은 물론, 초서와 고문서 고유의 투식을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수련기간이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인력은 본원 교수 4~5명, 한국학대학원 출신 전문위원, 연구원 3~4명이 있거나 장기적으로 약 2~30명 내외의 젊은 학자군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을 가르칠 서당출신 한학자, 사계 전문가는 노쇠하거나 사망하여 그 교육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부에서 보조하는 '국학진흥연구사업' (1993~2002, 연간 3억) 가운데 약 2억이 고문서 사업

에 투입되고 있으나, 인건비 이외에 자료의 수집, 정리 영인본 출간에 대부분의 예산이 소요되어, 전산화를 통한 대국민서비스, 번역과 주석 등 자료를 가공하는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2. 대책

가. 지방 향토문화 연구자 연수과정의 신설과 이를 통한 조사망 구축

지방에는 이른 바 향토사가로 불리는 문화원 관계자, 시·군 공보실 공무원, 향토문화연구회 회원 등이 있다. 이들은 자기 고장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자기고장의 문화를 연구하고, 이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체계적 교육이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研修'가 필요하다. 본원에서는 1993년부터 1999년까지 각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문화연구자 600 여명을 본원에 초청, 2박3일 정도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이 요구하는 한결같은 소망은, 방학 등을 이용 1~2개월 정도의 연수과정을 통해 향토문화연구방법론 개발 등 체계적인 연찬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본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볼 예정이다. 이같은 과정이 개설되면 이들에게 자료조사방법론 등을 교육시켜 전국적인 자료조사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한국학대학원에 <문헌학>전공을 개설, 고문서 인재 양성

고문서와 고서를 수집, 정리, 가공, 보존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업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는 교수 3명, 전문위원 5명, 연구원(비상임) 10여명이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방대한 고서 및 고문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정리·가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古文書館'의 신설이 요구된다. 고문서 등 전적은 어려운 漢文, 그리고 심한 草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몇 십년이 지난다면 이를 해독할 인력이 거의 없어질 것이 뻔하다. 그러나 대학 졸업생의 대부분이 漢文에 문외한들이기 때문에 한문과 문헌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본 원에서는 2000년도부터 한국학대학원 협동과정에 <文獻學> 전공을 신설, 해당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강의는 한학, 한국사, 국어국문학, 한문학, 법제사, 경제사, 사회사, 서지학, 고문서학, 기록보존학 전공자 가운데 일가를 이룬 원로 학자들이 말도록 하며, 강의내용은 원전해독과 탈초, 번역 등 실무능력의 배양에 초점을 들 예정이다.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현재 우리의 고전 가운데 초서 등 난해한 한문으로 된 것은 전체 고전적의 약 절반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威鍾漢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종합발전계획 추진 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답 변)

○한상진 원장 취임 직후 수립한 종합발전계획의 핵심적 내용은 1) 연구중심대학원의 한국적 모델 창출, 2)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21세기 한국사회의 비전 탐구, 3) 한국학 기초자료의 체계적 수립, 정리, 편찬, 보급, 4) 한국학 국제교류의 강화 5) 한국학 종합전산망 구축, 6) 시설보완 등입니다. 순서대로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구중심대학원의 한국적 모델 창출

연구와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대학원 교육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제간 강의를 도입하여 현재 정규 강의의 25% 정도가 학제간 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문화에 대한 심층 연구, 한국문화와 외국문화의 비교연구를 통해 대학원 교육을 특성화하기 위해 관련 학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대학원 발전과 관련한 종합계획의 내용별 추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 한국학자 양성기능 확대 : 입시제도 및 학위 수여제도의 개선,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의의 개설, 적극적인 홍보로 외국인 한국학자 양성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박사후 연구과정 설치 :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교수 채용 : 대학원 편제 개편이 끝나는 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수를 공개 채용할 계획이며,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의 우수 인력을 초빙교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한국학 분야별로 필요한 교수를 충분히 충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조교 충원 : 교육과 연구의 연계강화를 위해 연구조교 충원 계획을 기초로 내년도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청계서당 확대 : 금년도에 초급반을 증설하여 41명을 모집하였습니다. 고급반 설치와 지방분원 설치를 위해 문화관광부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한국문화강좌' 교재개발이 예산 사정으로 인해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21세기 한국사회의 비전 탐구

본원의 99년도 연구사업은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에 기반을 둔 미래 한국의 좌표 탐색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원의 순수 연구사업이 1년에 3억여원에 불과한 실정 이므로 대형 연구사업의 추진이 어렵습니다.

3) 한국학 기초자료의 수집, 정리, 편찬, 보급

고문서나 고전적, 그리고 본원 소장 장서각 소장 자료에 대한 정리와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년 3억원을 투입하는 '국학진흥연구사업'은 금년이 사업 제6차년도로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현대사 기초자료에도 관심을 가지고 별도의 사업팀(근현대사자료팀)을 구성하여 구술자료수집 등 관련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4) 한국학 국제교류의 강화

본원이 개원 이후 계속해온 외국인 한국학자 초청지원 사업은 비록 규모는 작으나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중점사업으로 한국학영문교재개발 사업을 구상하여 2000년도 사업예산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영문한국백과사전 편찬사업은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실있는 사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원고 검토 작업을 추진중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에 합당한 출판비나 교열비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5) 한국학 종합전산망 구축

삼성데이터시스템(SDS)의 지원 하에 한국학 분야별 전산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상당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정보통신부의 사업비 지원하에 한국학전자도서관 사업을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문서를 비롯한 한국학 기초자료와 정보를 디지털 자료화하여 한국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유관 기관과 공동사업으로 한국역사종합사이트 구축도 추진중입니다. 이러한 문화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6) 시설 보완

대학원생 전용 기숙사, 외국인 한국학자들을 위한 생활관, 고문서 등을 전시하고 보관할 수 있는 장서각 전용건물 등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2000회계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질 의)
한국학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증대 방안은?

(답 변)

1. 한국학 Fellowship

세계 각국에 있는 한국학 연구자중 매년 4~5명을 선발·초청하여 숙식 제공, 연구시설제공 및 연구비 지원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하여 지원대상자들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2. 해외석학 초청지원사업

해외에서 명망있는 인문·사회계열의 우수한 석학들을 본원에 초빙하여 이들이 본원의 교수들과 공동발표, 토의, 공동집필등의 과제를 수행케 할 계획이며, 본원 교수들에게는 해외정보 및 학문교류의 기회 확대를 제공함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질 의)
연구사업 활성화 대책은?

(답 변)

1. 한국학 Post-Doc 과정을 실시하여 한국학 연구에 유능한 신진학자의 영입의 일환으로 연내에 객원연구원을 모집하여 내년도부터 연구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임.

2. 한국학의 기초 연구로서 한국의 역사문화 및 생활사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물론 전통사상의 재발견, 새천년의 한국사회의 비전 탐구 그리고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통문화의 현대화 작업에도 역점을 두어 연구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임. 특히 방대한 민족문화 유산정리 사업으로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의 후속사업으로서 우리 역사와 문화 地理誌인 「향토문화사전」(가제) 편찬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질 의)
철저한 고문서 관리 대책과 문제점 및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답 변)

고문서는 한국정신문화의 유산이자 국학연구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이에 본원에서는 1980년 이후 20년 동안 약 42만건을 수집·정리 하여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국학자료의 인멸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1993년부터는 ‘국학진흥연구사업’으로 본격적인 조사와 정리,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자 및 일반 국민들이 이를 쉽게 활용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 국학진흥연구사업(1993~2002)을 통한 자료 조사·수집·정리·연구·간행사업

○전국 각지에 산재하고 있는 고문서, 전적 등 각종 자료를 조사, 수집, 정리, 마이크로필름화 하여 유실위기에 있는 국학자료들을 영구보존하고, 목록·평판·배접 등 정리작업을 거친 자료는 영인본 혹은 정서본(탈초)으로 간행, 학계에 제공한다.

○각 도·시·군의 공보실장, 문화원장, 향토사학자, 고문서 및 고전적을 소장하고 있는 문중 대표자를 초청, 연찬을 개최함으로써 문화 유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고문서 및 전적의 조사·수집작업에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2. 기증·수탁사업을 통한 원본 고문서의 보존·관리
현재 고문서는 문중, 서원, 사찰 등지에 보관되어 있고, 이 가운데 개인 문중에 약 70~80%의 고문서가 있다. 그러나 이들 문중은 어른들이 노쇠하거나 사망하면서 이들 문서를 관리할 인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신세대로 이관된 문서는 무관심, 무지, 상품화 등으로 인해 우리의 문화재가 사라져 가고 있다.

이에 본원에서는 고문서의 수탁사업을 통해 이들 고문서를 위탁관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999년 현재 약 5만5천여점의 고문서를 보관, 관리 중에 있으며 기탁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본원에서는 장서각(도서관) 내에 20평 규모의 ‘기탁자료실’을 두고 있다.

3. 신장서각 건립을 통한 문서보존 및 전시
고문서 관리의 근본 대책으로서, 본원에서는

「新藏書閣(가칭)」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그 마스트플랜을 마련한 바 있다. 신장서각은 기존 장서각 고도서, 기증 기탁고문서를 보관, 관리하는 한편 전 국민에게 한국문화의 우수성(특히 韓紙, 고판본, 문자생활, 생활문화)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입안되었다. 현재 교육부와 건립의 타당성 등을 협의중에 있다.

4. 대국민 활용방안모색(고문서 정서·번역·인터넷 서비스)

고문서는 난해한 초서와 고유의 투식 때문에 한문에 능한 사람일지라도 쉽게 접하기 어렵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서(탈초)사업, 「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고문서관(신장서각) 신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고문서의 정서, 번역, 주석 등 가공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고문서학회, 규장각,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화추진회 등 유관 단체,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 연구원, 한학자 등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 서비스는 '99년도 공공근로를 통한 정보화 사업(정보통신부)을 통해 고문서목록이 올라와 검색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 보다 많은 사

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의 정책과제로 연구 중에 있다. 고문서의 번역은 정보통신부에서 1999년11월부터 시작하는 「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본원, 규장각,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화추진회 공동으로 시행)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 장기 계획으로는, 본원에서 건립을 추진중인 신장서각(고문서관)내에 전시실을 두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金瑋鎬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고전자료 수집 및 번역 활성화 대책은?

(답 변)

1. 전국의 고문서 소장현황 : 약 2,000,000여 점 전국의 名家, 書院, 사찰 등에는 우리 민족문화의 정신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으나, 근대화·산업화과정에서 무관심, 관리소홀, 물이해로 인해 인멸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에는 소장자가 노령화 또는 사망함으로써 관리 유지의 사각지대에 있다.

(표) 지역별 고문서·전적의 양(추정치)

* 단위 : 점(책)

각 도 별	개인(문중)소장	서원·향교	사 찰	비 고
서울특별시	100,000	5,000	2,000	
부산직할시	50,000	5,000	1,000	
대구직할시	100,000	3,000	1,000	
인천직할시	10,000	1,000	500	
광주직할시	50,000	3,000	500	
대전직할시	50,000	3,000	500	
강 원 도	50,000	3,000	30,000	
경 기 도	50,000	5,000	20,000	
경상남도	300,000	30,000	10,000	
경상북도	500,000	50,000	10,000	
전라남도	200,000	30,000	10,000	
전라북도	100,000	20,000	5,000	
제 주 도	10,000	1,000	500	
충청남도	100,000	20,000	10,000	
충청북도	100,000	10,000	5,000	
계	1,770,000	189,000	106,000	2,065,000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고문서 수집 및 운영현황

가. 고문서 수집·정리·간행

- 수집·정리(20년 : 1980~1999) : 약 42만여점
- 기증·기탁(3년간 : 1997~1999) : 약 5만5천여점
- 발간도서(20년간 : 1980~1999) : 46책(古文書集成 제1~46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개원 초기인 1980년부터 古文書, 古書를 중심으로 도서관에서 수집 업무를 주관해 오다가, 1993년대 이후 교육부의 지원아래 조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년 가까이 1,500여 곳을 조사, 총 420,000점의 고서와 고문서를 수집 정리하였고, 보관능력을 상실하여 인멸 직전 상태에 있었던 5만 5천 여점을 기탁·기증을 받아 장서각내에 소장하고 있다. 특히 1993년 ‘국학진흥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체계적으로 고문서를 수집 정리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도, 서울·경기 등 전국의 문중, 서원, 사찰, 개인 등이 소장한 고문서를 대여 받아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슬라이드 및 스캐너)해오고 있다. 촬영한 문건 중에는 경북 채령이씨 영해파 종가고문서 394점(보물 876호), 경북 예천 예천권씨 소장 「草欄日記」 4책(보물 879호) 등 보물로 지정된 귀중한 문화유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비교적 가치가 높은 고문서들은 선별하여 「古文書集成」을 간행하여 현재 총 46권에 이르고 있다.

나. 인력과 운영현황

(1) 조직 및 인원

- 담당부서 : 장서각
 - 소장 : 교수(한국역사전공) 1명
- 담 당 팀 : 국학진흥연구팀(총 26명)
 - <정규직> 팀장 : 교수 1명(한문학전공)
 - 고전 전문위원(한국 및 고문서전공) 5명
 - 사서(고전 목록) : 1명
 - 촬영기사(M.F촬영) : 3명
 - 행정요원 : 1명
 - 조 교 : 1명
 - <사업직> 연구원 12명(박사학위수료자)
 - <인턴직> 2명(대졸)
- 사업심의위원회
 - 위 원 장 : 대학원장
 - 위 원 : 원내외 관계전문가(6명)

○사업추진위원회

사업실무담당자 : 교수 등 6명

다. 향후대책

- 문서보관소, 「古文書館」의 건립
- 인재양성, 한국학대학원에 「文獻學」 專攻 신설

지방에 산재한 고서와 고문헌을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하기 위해서는 지방 문화원과 향토사가 등과 연계하여 각 시, 도, 군별로 저인망식 조사·수집을 하여야 한다. 현재 본원에서는 지방 문화원 관계자를 매년 초청하여 고서 및 고문서 조사 및 관리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과 연계하여 지방의 고문서와 고서를 수집하고 있다.

개인이나 문중, 사찰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와 고서를 기탁, 기증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본원에서는 현재 이들 자료를 기탁, 기증받을 예산과 소장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소장 공간을 갖추게 되면, 멸실위기에 있는 개인 소장의 자료들이 기탁, 기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리실 내에 20평 규모의 기탁자료실을 두고 있다.

고서와 고문서를 탈초하거나 해제, 역주 등의 사업은 매우 시급하다. 현재 고문서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고문서학회, 규장각,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화추진회 등 유관 단체,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 연구원, 한학자 등을 널리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들 연구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자료의 탈초, 해제, 역주 사업에 동원할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체계적으로 고문서와 고서를 수집, 정리, 가공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업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교수 3명, 전문위원 5명, 연구원(비상임) 10여명이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방대한 고서 및 고문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정리·가공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古文書館」의 신설이 요구된다. 시설과 예산이 있더라도 인력이 지원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고문서 등 전적은 어려운 漢文, 그리고 심한 草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십여년만 지난다면 이를 해독할 인력이 거의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대학 졸업생의 대부분이 漢文에 문외한들이기 때문에 한문과 문헌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본 원에서는 2000년도부터 한

국학대학원 협동과정에 <文獻學> 전공을 신설,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강의는 한학, 한국사, 국어국문학, 한문학, 법제사, 경제사, 사회사, 서지학, 고문서학, 기록보존학 전공자 가운데 일가를 이룬 원로학자들이 맡도록 하며, 강의내용은 원전해독과 탈초, 번역 등 실무능력의 배양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현재 우리의 고전 가운데 초서 등 난해한 한문으로 된 것은 전체 고전적의 약 절반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질 의)

한국학 교재개발 강화 방안?

(답 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국학교재 개발을 위한 노력은 국제교류재단, 서울대 등 이미 여러 기관이나 대학에서 추진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상태입니다. 본 연구원 역시 한국학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현재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원은 「한국민족대백과사전」, 「한국인물대사전」,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방언조사연구」를 발간하여 학계에 나름대로 공헌하였으며, 현재 「한국영문백과사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1993년부터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강좌를 해마다 개최하여 한국학연구자이나 한국학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학을 알리고 한국어를 교육하였습니다. 이같은 한국학관련 연구성과와 한국학 및 한국문화의 해외홍보의 능력을 나름대로 축적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 한국학교재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기관이나 대학보다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또한 한국학교재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한국학교재개발’ 사업을 추진코자 본 연구원 3개년 종합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2000회계년도 출연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여 현재로서 추진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사업규모로 볼 때 특별한 재정지원 없이 본원의 기존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2000년 대학원생 모집에서 ‘한국문화(가칭) 협동과정’을 신설하여, 한국학 및 한국문화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한국문화 협동과정’ 대학원생을 교육시킬 수 있고, 나아가 그들을 통해 해외의 외국인에게 한국문화와 한국학을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교재를 적극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榮一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한국문화강좌 확대 계획 및 해외 한국학 교수 요원 양성을 위한 정규 교육프로그램 개발 계획은?

(답 변)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강좌는 한국학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98년도까지는 30명을 선발하였으나 ‘99년도부터는 40명선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재외공관 및 재외 한국문화원 등의 현지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화강좌」 개설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원은 2000년 대학원생 모집에서 ‘한국문화(가칭) 협동과정’을 신설하여, 한국학 및 한국문화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인력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인으로 한국문화를 해외에 홍보하고자 하거나, 외국인으로 한국학 및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인력을 모집하여,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한국학교재는 전무한 형편이며, 이미 다른 기관이나 대학에서 교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중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도 이 같은 필요성을 절감하고 교재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교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배출된 우수한 인력이 해외에서 한국학 및 한국문화를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金貞淑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내부비리를 외부에 제보하였다는 과실죄를 이유로 안택원 교수를 해임하였다. 그러나 해임에 대한 증거로 제시된 정문출입부는 허위자료로 나타나 해임배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원장은 안택원 교수에 대한 해임이 사심없이 이루어졌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가?

(답 변)

○교육부에서 본 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99.1.18~1.28)한 결과 지적사항과 함께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무단결근 관련자 2명에게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 감사결과 징계처분요구는 연구원 총무과 조사일수가 기준이 아니고 교육부 감사당시 본인이 인정하여 확인서에 기재한 본인인정일수를 기준으로 징계처분이 요구된 것입니다. 본인인정일수는 총무과 조사일수와는 별개로 본인이 연구원에 출근하지 않은 날을 인정한 일수로서 교육부 감사기간 동안 감사관과 무단결근이 문제시 되는 교수들이 일대일 면담을 통하여 본인이 확인하여 인정한 일수입니다. 연구원은 교육부의 중징계처분요구에 따라 4차례에 걸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본원인사규정에 의하면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증거의 제시 및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다만 2회에 걸쳐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기피할 의사를 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택원교수의 경우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포기하였으며 기타 서면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 다. 또한 인사위원회 징계심의결과에 대하여 임용권자인 원장은 재심을 요청할 권한이 연구원 규정상에 보장되어 있으며 재심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백계문 기획협력실장은 '99년3월23일 임용되어 본원 규정에 따라 처·소·국·실장은 인사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안택원 교수 징계 재심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와는 달리 기획협력실장의 지위는 보직자중 서열상으로 보아 다른 인사위원에게 심리적으로 압박할 위치가 아닙니다. 더구나 재심결정은 비밀투표로 결정하였고 한 개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한편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안귀덕교수의 복직은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심결정사항으로 복직된 것으로 연구원에서 임의로 조치한 사항이 아닙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게 되어 있고 처분권자의 별도조치없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위와같이 위원님께서 우려한 바와는 달리 안택원교수의 징계결정은 어떠한 편견이나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본원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질 의)

낙하산 인사인 백계문 기획협력실장이 발령

받은 날짜는 '99년3월23일이다. 그리고 원장의 재심의 요청에 의해 개최된 제7차 인사위원회는 4월1일 개최되었다. 백계문 실장은 발령받은 지 9일만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안택원 교수의 해임을 주도하였는데, 원장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답 변)

- 9일이라면 관련 업무를 파악하는 데 부족한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인사위원회의 한 멤버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 본인 인정만 140일간 무단 결근이라는 것은, 아직도 '연구원'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한 기관의 일원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다고 보았음.
- 또한 연구원의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범상 허용되는 한의 강력한 조치, 이를테면 일벌백계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음.

(질 의)

강의없이 내부연구과제만을 수행하며 매달 250여만원에서 306여만원의 월급을 받아가는 교수가 1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답 변)

- 연구원 특성상 연구원 소속 교수는 연구와 교육 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대학 교수의 경우 교육(강의)의 의무만을 부과하고 별도의 의무 연구과제를 부여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현재 일부교수의 경우 강의가 없는 것은 질높은 한국학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과제 수행에 전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석,박사과정 각각 총 정원이 60명으로서 학생 규모가 적기 때문에 매학기 일부교수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강좌를 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원 소속 교수의 경우 학생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강의에 대한 열의가 높은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로 말미암아 강의를 맡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원에서는 대학원중심대학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학 교육기능강화 및 대학원 특성화를 위해 전공편제 개편과 정원확대를 주내용으로 하여 대학원학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학생수가

증원되어 강의에 대해 열의가 있는 교수가 다른 이유로 강의를 맡지 못하는 격차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원 교수의 경우 원내연구 과제에 참여하더라도 연구수당 등 별도의 연구비를 지급받지 못하며 연구과제 수행 또한 교육기능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강의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